금수강산

9

주체108(2019)
루계 제361호 월간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

2. 잊을수 없는 색날은 사진 한장두장 번질 때면
빈터우에서 첫삽을 뜨던 전우들이 나를 보네
그때 일을 우리가 어이 잊으랴
그때 일을 우리가 어이 잊으랴
허리띠를 조이며 혁명가를 부르던
그때 그 나날들을

3. 세월은 흘러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은 변했어도
어머니당을 따르는 마음 청춘으로 남아있네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
굳게 다진 그 맹세 심장으로 지키던
그때 그 나날처럼

만리마시대의 전형－리명순

해마다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150％로 넘쳐 수행하여 온 나라에 로력혁신자, 만리마시대 전형으로 알려져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공훈직포공 리명순,

올해에도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안은 그의 얼굴에는 시대의 전형의 영예를 계속 떨쳐갈 드높은 열의가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차 례

새형의 무궤도전차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8월

조선의 국풍 — 자력갱생

흔히 가정에 가풍이 있듯이 나라들마다에도 국풍이 있기마련이다.

우리 조국의 국풍에서 가장 대표적인것은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 이 길지 않은 네 글자는 오늘 조국땅 그 어디서나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민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자력으로 부흥하는 조국의 위대한 력사를 써나가고있는 인민이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복을

해방[주체34(1945). 8. 15.]후 우리 조국에서는 대자연개조의 첫 사업으로서 보통강개수공사가 진행되였다.

그날 착공식에 참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격려사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락후와 빈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부귀는 누가 거저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하며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조국인민은 항일의 나날 백두의 천고밀림속에서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던 빨찌산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짧은 기간에 새 조선의 터전을 닦았고 참혹한 전쟁의 불구름도 밀어냈으며 빈터우에 보란듯이 사회주의공업국가도 일떠세우며 영웅인민으로 자라났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혁명의 어려운 고비마다에서 전진의 비상한 동력이 되고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였음을 전하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얼마 되지 않던 주체

42(1953)년 9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김책제철소(당시)의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전쟁전 김책제철소는 어느 한 나라의 기술적방조를 받아 확장공사를 하게 되여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실정을 잘 모르다나니 설계를 위한 현지조사사업과 설계작성사업에만도 2년이 걸렸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 공사는 착수도 해보지 못하고말았던것이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듣고나신 그이께서는 그렇기때문에 모든것을 자체로 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자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책제철소뿐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힘, 우리 손으로 전화의 재더미를 가시고 나라의 경제를 일떠세울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수많은 공장들과 건설장들을 찾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복구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며 자력갱생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어느 한 나라의 기자는 그이의 령도따라 조국인민이 높이 발휘하고있는 자력갱생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기풍에 깊이 감동되여 이런 경탄을 터뜨리였다.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할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사조마냥 재더미속에서 소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조선의 복구와 건설일것이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고 강산도 변하였으며 세대도 바뀌였다.

국가건설의 더 높은 령마루가 앞에 나설 때마다 조국인민들은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국가의 재부를 더욱 늘여가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지하전동차, 경비행기, 무궤도전차, 궤도전차들에도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투철한 자주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이 깃들어있다.

오늘날 자력갱생은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자주와 예속, 발전과 퇴보를 결정짓는 사활적문제, 관건적문제로 나서고있다.

대동강반의 미래과학자거리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어낸 무역짐배《자력》호

한것은 적대세력들이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공화국이 저들의 날강도적요구에 굴복하기를 바라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력갱생이라는 위력한 정신으로 무장한 조국인민들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었다.

만복의 열쇠, 만능의 힘

조국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통하여 자주의 혁명로선과 자력갱생의 전략을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것을 재천명하였다.

강원도의 인민들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여 자력갱생대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강원땅에 울려퍼진 이 웨침에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막는 적대세력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다시한번 보여주려는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심이 그대로 실려있다.

강원도사람들은 자력갱생이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의 존엄을 지켜주고 잘살게 하여주는 만복의 열쇠이고 만능의 힘이라는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실감하였다.

도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원산청년발전소를 건설할 때 한 일군이 가지고다니던 수첩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다.

버력속의 돌을 깨여 물길굴피복에 필요한 자갈해결. 버력에서 3천㎥의 《모래》해결. 골재수송에 필요한 수많은 연유와 로력 절약.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무슨 힘으로 만년언제며 발전소를 일떠세웠는가를, 강원도인민들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행복한 래일을 창조해가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완공된 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높은 정신력의 소유자, 자력갱생의 선구자들로 되였으니 그보다 더 크고 귀중한 재부가 어디 있겠는가고, 강원도가 참 부럽다고 하시였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전기문제해결에서 성과를 이룩한데 머무르지 않고 식량과 땔감, 강재와 세멘트, 기초화학제품, 각종 마감건재들을 비롯하여 절실

지하 평양을 누비는 지하전동차

히 필요한것들을 자급자족하는 단계에로 도약하고있다.

자력갱생이 비록 힘은 들지만 그 진맛과 재미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음을 잘 알기에 전체 조국인민들에게 모두가 자력갱생정신을 체질화한 신념의 강자,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고 남먼저 호소하였던것이다.

그들의 호소에 전체 인민이 화답해나섰다.

나라의 자립경제를 떠받들고있는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기계, 철도운수부문의 로동계급이 앞장서고 건설건재부문과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로동계급이 일시에 들고일어나 전국을 자력갱생대진군으로 진감시키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농사열풍, 다수확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조국인민들은 적대세력들이 제재를 하든 안하든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곧바로 전진할것이며 기어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내세운 꿈과 리상을 실현하고야말것이다.

우리 조국의 영원한 국풍으로 이어나가며 후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정신적자산인 자력갱생은 오늘날 인재와 과학기술을 떠나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현장들과 연구기지들에서 맹활약하고있는 인재들이 쓸모없이 여기던 모든것을 보물로 전환시키고 자기 단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핵심적,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다.

몇몇 인재들뿐이 아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까지도 과학기술의 진맛을 알고 새 기술창조에 뛰여들어 대중적기술혁신으로 낮과 밤을 보내고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에 의거하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하는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조국인민들이기에 누구나 시간을 아껴가며 과학기술을 배우고 또 배워 지식형의 근로자, 창조형의 인간으로 준비해가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자력갱생의 열풍으로 짓뭉개버리며 영웅인민의 강용한 기상으로 일떠세운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이 행복의 래일을 말해주고있다.

자력갱생을 영원한 국풍으로 새겨안고 나아가는 조국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연옥

자기 힘으로 전진해온 기계공업

- 기계공업성 국장 김현철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오늘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자력갱생으로 이어온 우리의 기계공업발전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조국의 기계공업은 전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자력갱생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 그렇습니다. 전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공업화와 기술혁명에 절실히 필요되는 기계설비와 부속품들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되고있을 때 함경북도 경성군에 있는 자그마한 아마공장(당시)에서 5대의 낡은 절삭기계를 가지고 여러대의 공작기계들을 만들어 자체의 힘으로 공장의 기술장비를 강화해나갔습니다.

큰 공장도, 전문기계공장도 아닌 자그마한 공장에서 일어난 공작기계증산의 불꽃은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불길로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 확산되였습니다.

국가에서 로력과 자재를 더 받지 않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공작기계를 한대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진행되였던것입니다.

그리하여 불과 한해사이에 희천공작기계공장(당시)에서는 1 300여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계획외에 1만 3 000여대의 공작기계가 더 생산되였습니다.

기자: 이 운동은 그때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소극성을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를 불사르며 자력갱생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나간 계기로 되였으며 그것은 나라의 공업발전을 크게 추동하였다고 봅니다.

국장: 당시 룡성기계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3m타닝반을 만들었지만 일부 일군들은 그후 공장능력이 확장된데 맞게 대형공작기계인 8m타닝반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공장의 로동계급은 당(조선로동당)이 맡겨준 과업은 무조건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대담하게 8m타닝반 제작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과정은 곧 공장에서 기술신비주의와 보수주의, 소극성을 타파해나가는 하나의 혁명이나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발전된 나라에서 2~3년은 걸려야 만든다는 8m타닝반을 5개월동안에 만들어냄으로써 자력갱생의 본보기공장으로서의 자기의 전통을 창조해나갔습니다.

자력갱생의 정신은 다른 중요공장들에도 힘차게 나래쳐 기적적인 생산성과들을 안아왔습니다.

기양기계공장(당시)에서는 30여일만에 첫 《천리마》호뜨락또르를 만드는 성과를 이룩하였고 승리자동차공장(당시)에서는 40여일만에 첫 《승리-58》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서평양철도공장(당시)에서는 《붉은기》호전기기관차를, 락원기계공장(당시)의 로동계급은 설계도면 한장 없었지만 제힘을 믿고 떨쳐나 첫 《천리마》호굴착기와 대형양수기, 불도젤 등을 막힘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는 6개년계획의 첫해인 주체60(1971)년 한해동안에만도 자체의 힘으로 1만대이상의 각종 공작기계를 생산해냄으로써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어머니공장으로서의 전통을 창조하였습니다.

기자: 자력갱생의 정신은 그후 공작기계의 정밀도를 높여 대형공작기계와 특수공작기계들을 생산하기 위한 1985년 6월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으로 또다시 이어져 기계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더 튼튼히 닦아놓은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 정말 이 운동이 시작되여 5개월동안에 전국적으로 1 000여대의 공작기계가 더 새끼쳐지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밖에 만들지 못한다던 1만t프레스를 1년 남짓한 기간에 제작완성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기자: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계제작공업에서는 량적면에서뿐아니라 질적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1990년대말 적들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수입의존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지 않았습니까.

국장: 그때 우리의 로동계급은 기계제작을 모방형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나라 실정에 철저히 부합되는 개발창조형에로 지향시켜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고성능형의 4, 5, 6, 8, 9축의 CNC기계들이 다량생산되였고 주체99(2010)년 12월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 최첨단CNC설비인 10축조종복합종합가공반이 개발되여 선박, 우주 및 항공 등 나라의 공업전반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자립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지금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작기계의 고속화, 고정밀화, 지능화, 자동화, 복합화를 추진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공장들에서는 유연생산체계와 유연생산세포를 확립하여 공장의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참으로 조국의 기계공업이 오늘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 지하전동차와 궤도, 무궤도전차들을 비롯하여 인공지구위성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기계공업으로 발전할수 있은것은 자력갱생의 전통을 끗끗이 이어가고있는 조선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결실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선진적인 공작기계를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자력갱생으로 이어온 기계공업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나가려고 합니다.

기자: 이야기를 듣고보니 오늘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갈데 대한 우리 당(조선로동당)의 로선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실감하게 되였습니다.

* * *

◇일 화◇

찾으시는 곳들마다에서

거듭거듭 치하해주신 공 장

주체105(2016)년 6월 15일이였다.

이날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당시 공장에서는 현대화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강냉이를 원료로 하는 당생산공정들을 새롭게 꾸리고 생산을 다그치고있었다.

일군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장에서 공업적인 방법으로 강냉이를 가공하여 여러가지 당분을 얻어내는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완벽하게 확립해놓음으로써 식료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어 강냉이가공공정, 물엿공정, 옥당생산공정, 과자생산공정 등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고, 엄격한 품질검사체계까지 확립하여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제품의 위생안전성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공장의 현대화에서 가장 큰 성과는 설비의 주체화비중을 95%이상 보장한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서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쯘하게 차려놓았는데 하나와 같이 미남자처럼 생겼다고, 최근년간 당의 주체화방침관철에서 식료공업부문이 앞장에 섰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이 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본보기로 내세울만 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또다시 평가하시였다.

자기 힘, 자기 기술로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해놓은것이 그리도 기쁘고 대견하시여 그토록 거듭거듭 치하해주시는 그이의 기쁨에 넘치신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승리의 동음소리

주체105(2016)년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먼저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천을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학생용가방들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볼수록 멋있다고, 형태와 색갈이 다양할뿐만아니라 편리성, 기능성, 미학성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이어 새로 꾸린 완전히 주체화된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유연창대직기와 고온고압로라염색기 등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있는 데트론인견실로 가방용천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는데 생산공정의 주체화실현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의 분에 넘치는 평가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것이 바로 자강력이라고, 우리가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고 해도,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높은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고 해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만부하로 돌아가고있는 공장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 자력갱생의 동음소리는 머지않아 세상만복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혁명승리의 동음소리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를 내리는 징벌의 동음소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수 기

《붉은기》1호전기기관차를 볼 때마다

얼마전에 함경남도에 출장갔던 나는 두줄기 궤도우를 힘차게 달리는《붉은기》1호전기기관차를 다시 보게 되였다.

내가 일하는 기업소 전세대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볼수록 감회가 새로왔다. 그 전기기관차는 내가 세상에 태여나기 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누구나 그 전기기관차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안다.

지금으로부터 근 60년전 전쟁의 페허를 갓 털고 일어난 우리 나라에서 전기기관차를 자체로 만든다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였다.

이 시기 기계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전기기관차에는 고도의 정밀성과 견고성을 요구하는 1만 4천여종의 부속품이 무려 18만개나 들어가야 했다.

하기에 그때 세계에는 전기기관차를 만드는 나라가 불과 몇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되였다. 심지어 공업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조선에서 전기기관차를 만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까지 하였다.

바로 그러한 시기 서평양철도공장(오늘의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을 몸소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한번 대담하게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보라고, 구배가 심하고 굴곡이 많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 맞게 전기기관차를 견인력이 세고 든든하면서도 문화적으로 만들라고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심장에 새겨안은 철도로동계급은 조선사람의 무궁무진한 슬기와 불굴의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며 보란듯이 짧은 기간에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실로 기적이였다.

주체50(1961)년 8월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전기기관차를 몸소 돌아보시면서 잘 만들었다고, 우리는 증기기관차를 만들지 않고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으니 한계단 뛰여넘은셈이라고 하시면서 첫 전기기관차의 이름을 《붉은기》라고 달아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붉은기》호전기기관차는 명실공히 자력갱생의 산아로 불리우고있으며 우리 기업소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게 되였다.

이 과정에 견인력이 비할바없이 높은 전기기관차를 만들었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교류전기기관차, 오늘에는 지하전동차도 제작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지하전동차개발, 생산은 말이 쉽지 정말 헐치 않았다.

하지만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기업소의 모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기의 힘과 기술로 대차구조방식과 차바퀴를 설계하였고 생산원가가 적으면서도 운영에 편리한 비동기전동기도 만들어냈다.

과학자, 기술자들 못지 않게 우리 기업소의 평범한 로동자들도 그 나날 수많은 발명, 창안을 하였다.

이런 발명과 창안의 련속속에 우리의 지하전동차1호는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오늘 우리 기업소에서는 지하전동차를 계렬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기업소뿐이 아니다.

뻐스수리공장의 로동계급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새형의 궤도전차를 만든데 기초하여 궤도전차를 계렬생산하고있으며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로동계급은 그 정신으로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을 계속 만들어내고있다.

조국의 지나온 어제와 오늘의 현실은 자력갱생이야말로 번영의 보검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나는 확신한다.

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로동계급이 있는한 우리의 전진을 그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다는것을.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기사장 조남일

체험을 믿고 앞길을 열어나갈 때

원산군민발전소

오늘 조국에서 강원도는 전국의 앞장에서 전진하는 도로 조국인민들속에 잘 알려져있다.

지난 시기 경제토대가 약하여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강원도가 지금은 전기와 식량, 땔감, 강재와 세멘트, 기초화학제품, 각종 마감건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자급자족하는 도로 전변되고있다.

성과의 비결은 강원도인민들이 지닌 자강력에 있다.

지난 시기 강원도의 경제토대에서 제일 난문제가 전기문제였으며 자체의 전력생산은 거의

원산구두공장

령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도의 이러한 실태를 두고 누구보다 마음쓰신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원도의 전력문제해결을 위해 여러차례 도를 찾으시고 산세험한 곳까지 가보시면서 발전소의 위치도 잡아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밝혀주시였다.

당시 자기 도의 발전을 위해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도안의 인민들은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그이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다듬게 되였으며 건설공사에 떨쳐나섰다.

도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험한 준령을 꿰지르는 물길굴만도 수십리나 뚫어야 하는 공사량은 물론 여기에 드는 강재와 세멘트량도 참으로 방대하였다. 하지만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라는 사상적각오를 안고 발전소건설을 다그쳐나갔다. 건설자들은 과학적인 시공과 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기일을 앞당겨나갔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건설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문평제련소

고산과수종합농장

문천강철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부족한것, 없는것이 더 많았지만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이미 있던 용광로를 도에 흔한 철광석을 원료로 하고 콕스를 전혀 쓰지 않는 용광로로 새롭게 개조하였다. 뿐만아니라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와 자재들

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레루와 강재를 생산하여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었다

룡담세멘트공장에서도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설비들을 들어내고 소성로개건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강원도양묘장

사생결단의 의지와 그로부터 분출되는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자력자강의 일본새로 하여 원산군민발전소가 거연히 일떠섰으며 이것은 강원도를 자력갱생의 열풍으로 끓게 하였다.

이러한 열풍은 도내인민들에게 무슨 일이나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된다는 신심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할것없이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전진해가도록 추동하였다. 하여 도에서는 농업과 건재, 경공업부문 등에서 날에 날마다 혁신적성과들이 창조되게 되였다.

금강군에서는 지력을 높이고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다수확을 이룩하였으며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는 자체로 만든 설비와 원료, 자재로 인공잔디와 수지의자를 비롯한 각종 수지일용품들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안변요업공장에서는 난관을 완강히 이겨내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원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여 공장의 생산품들을 가까운 년간에 조선동해안지역 나아가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확대해나갈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현대적인 강원도양묘장과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도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

이뿐만이 아니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원산구두공장 등 경공업공장들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비를 현대화하여 생산된 제품들이 도뿐만이 아닌 전국의 인민들에게서 호평을 받는 명상품, 명제품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강원도사람들의 일본새는 자기 령도자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일해나갈 때 못해낼것이 없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전력이 남아돌아가는 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6개의 발전소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존엄높이 잘살게 하는 열쇠이고 만능의 힘이라는것을 강원도인민들의 간고하고도 보람찬 투쟁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불야경을 이룬 원산시

세계가 보는 《인민의 나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가 날을 따라 만사람의 각광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우리 공화국의 건국과 수호, 기적과 번영의 발전행로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출연자들은 근로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거창한 전변을 이룩해가는 조국의 현실과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해가는 인민의 모습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평화로운 새 세계를 바라는 인류의 열망을 음악과 무용, 체조와 교예, 천변만화의 배경대와 조명 등으로 보여주고있다.

세계각지에서 모여온 관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다나까 마사히로는 지난시기 세계기니스기록집에 등록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파문을 일으켰다, 《인민의 나라》 역시 대단히 장관이고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말하였다.

뉴질랜드 피터 윌스는 규모와 형상수준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면서 작품의 내용으로 보나 출연자들의 동작으로 보나 조선인민의 째인 규률성과 섬세성, 끝없는 창조력을 상징하는 성공한 작품이라고 평하였다.

모스크바의 한 시민은 서방의 선전과는 달리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으로 일심단결된 조선의 모습을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수난당한 대지

(전호에서 계속)

회의에서는 이런 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으로 지도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자립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파괴된 대중단체들을 복구정비하고 거기에 각계각층의 군중을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실천투쟁속에서 대중을 단련시킬데 대한 문제, 조중인민들사이의 공동투쟁과 친선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고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큰 규모의 투쟁에로, 경제투쟁으로부터 점차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을 능숙하게 련결시켜나갈데 대한 전술적원칙들을 규정하면서 좌경모험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할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1931년 5월의 《봄명월구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대중전취를 위한 회합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대중을 전취하는데서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좌경모험주의로선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용단을 내려 그 로선을 때리였다.

우리가 좌경을 치고 광폭적인 조직로선을 내놓자 회의참가자들은 그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였다.

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하였는데 연설들이 다 혁명적이였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것은 시간문제인것만큼 준비를 잘했다가 때가 되면 결사전을 벌리자고 부르짖었다. 로숙한 혁명가들이 많이 모인 회합이니 들을 소리도 많고 참고할것도 많았다.

나는 이 회의를 통하여 많은것을 배웠다.

회의가 끝난 다음 간도 전지역과 국내로 공작원들이 련이어 떠나갔다.

나는 명월구에서 얼마동안 이 일대의 당조직과 대중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지도하다가 안도로 향하였다. 안도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당분간 간도와 국내의 혁명사업을 추켜세우자는것이였다.

안도는 철도와 대도로,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여서 일제의 마수가 덜 미치고 주변이 온통 험한 산악과 밀림으로 에워싸여있어 연길, 화룡, 왕청, 훈춘지구와 무송, 돈화, 화전지구는 물론, 륙읍일대를 비롯한 국내의 조직들과도 련계를 가지기 유리하였고 유격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당조직건설사업을 추진시켜나가는데서도 매우 편리한 고장이였다. 주민구성도 대단히 좋았다.

더우기 조종의 산 백두산이 가까이에 있으므로 조국을 한시도 잊은적 없는 우리로서는 그 숭엄하고 장중한 모습에서 크나큰 정신적위안과 고무를 받지 않을수 없었다. 화창하게 개인 날이면 멀리 서남쪽하늘가에 백두령봉의 은회색파도가 바라보이였는데 그 은은한 원경이 시야에 안겨올 때면 무장을 들고 조국을 한시바삐 찾고싶은 충동으로 가슴이 세차게 고동치군하였다. 비록 조국을 떠나 이역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지만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항일의 총성을 울리고싶은것은 우리들의 공통된 심정이였다.

나는 돈화강습을 끝내고 4월에 이미 안도에 가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신병으로 시름시름 앓고있었다. 의술이 락후한 때여서 무슨 병이라는 진단도 못 받고 그저 《적》이 요동치는것 같다는 말씀만 하면서 탕약을 닳여 잡숫군 하였다.

자신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가 하는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푼전 한잎 없이 늘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나를 걱정하면서 부녀회사업에 있는 심혈을 다 바치였다.

두달만에 안도로 다시 찾아가는 내 심중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안도에 도착한 나는 예상보다 몹시 밝은 어머니의 얼굴빛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집생각은 하지 말고 나라를 찾는 일에 전념하라고 노상 타이르면서도 내가 나타나면 반가움을 참지 못하고 얼굴의 병색마저 감추는 어머니였다.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경대할머니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나를 얼싸안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그해에 만주로 온 할머니는 그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내 무송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반석죽의 가난한 가계를 연명해왔다. 우리 일가가 무송에서 안도로 자리를 옮길 때 할머니도 어머니를 따라 안도에 왔었다. 안도에 와서는 흥륭촌에 있는 영실이네 외가에 거처를 잡고 사돈집과 우리 집에서 엇갈아가며 침식을 하였다.

영실이란 형권삼촌의 외동딸이다.

형권삼촌이 감옥에 잡혀간 다음부터 우리 숙모(채연옥)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였다. 금방 시집을 와서 첫 아이를 낳고 살만 한 때에 남편이 불행하게도 감옥행을 하였으니 신경이 약해질만도 하였다.

나는 형권삼촌이 징역 15년의 형을 지고 감옥살이를 시작한 후 숙모에게 아이는 다른데 주어서 키우게 하고 재가하라는 권고의 편지를 써보냈다. 숙모는 그런 편지를 받고도 재가하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형님도 재가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세 자식을 키우고있는데 남편이 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시집을 다시 간단 말인가, 내가 재가하면 영실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설사 영실이를 남들에게 주고 다른 남자를 만나 새살림을 시작한들 내가 발편잠을 자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는가고 하면서 그런 말은 두번다시 입밖에 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 숙모가 아주 현숙하고 대가 있는분이였다.

어머니는 안도에 오신 후 기분전환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같이 데리고있던 숙모를 흥륭촌에 있던 친정집으로 보내였다.

우리 할머니가 영실이네 외가에 가계시면서 며느리의 뒤시중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었다. 그러다가도 병중에 있는 맏며느리의 생각이 나면 우리 어머니한테로 뛰여와 탕약도 닳이고 동자질도 하였다. 병약한 두 며느리를 돌보느라고 할머니가 그때 말없는 속을 많이 태웠다.

할머니가 고향으로 쉬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역에서 몇해를 보낸것은 외로운 처지에 빠진 두 며느리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애틋하고 다심한 시어머니의 사랑이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안도에 도착한 그날 밤 할머니는 내곁에서 주무시였다.

깊은 밤중에 잠을 깨여보니 내 머리가 할머니의 팔에 안겨있었다. 내가 잠든 다음 할머니가 베개를 슬그머니 밀어내고 내 머리를 안고계신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의 심정이 가슴에 마쳐와 차마 머리를 베개에 옮겨놓지 못하였다.

할머니는 쉬지 않고있다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고향생각이랑 잊은게 아니냐?》

《할머니, 그럴리가 있습니까. 나는 한시도 만경대를 잊은적이 없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일가친척들이 정말 보고싶습니다.》

《나는 사실 여기 식솔들을 다 데려가자구 만주에 왔댔다. 너는 못 데려가두 너희 어머니랑, 동생들이랑은 다 데려가자구 생각했댔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통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라를 찾기 전에는 다시 압록강을 건느지 않기로 맹세하고 떠난 걸음인데 성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내친 걸음을 어떻게 홀쩍 되돌려세우겠는가구 하면서 말이다. 어찌나 모질게 마음을 먹었는지 무송을 떠날 때 한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는 말을 더 붙이지 못했다. 여기서 사는게 조선독립에 더 리롭다면 나는 너희들을 더 잡아끌지 않고 혼자서 만경대로 돌아가겠다. 고향생각이 나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구싶거든 이따금씩 편지나 해다구. 그러면 너희들을 본듯이 생각하겠다. 나야 여기로 자주 다닐수 없지 않니.》

그후 나는 할머니의 이 부탁을 한번도 리행하지 못하였다.

조국의 신문들에 자주 실리는 내 이름과 항일유격대의 전과보도가 내 소식을 대신해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태여 편지를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네가 일을 많이 하자면 너희 어머니가 앓지 말아야겠는데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다가 일에 너무도 극성이니 야단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였다.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에 대한 걱정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가정살림을 떠메고나가야할 맏아들로서, 만경대가문의 장손으로서 생각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다음호에 계속)

녀성들도 건국사업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녀성들을 새 조국건설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심혈을 바치시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녀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의 나날 녀성들이 경제생활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당시 녀맹의 일군들은 경제사업이란 남자가 할 일이지 녀자가 할 일이 아니라며 낯을 돌리지 않고있었으며 문맹퇴치나 미신타파, 봉건유습반대사업에만 치중하고 국가의 경제계획수행과는 크게 인연이 없는것처럼 여기고있었다.

주체36(1947)년 2월 하순 북조선녀성동맹을 찾으신 어머님께서는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은 건국사업에서 한쪽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방대하고 아름찬 1947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은 녀성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며 남녀평등을 법률상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생활에 구현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고 일군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본보기단위를 꾸리고 그를 일반화해나가도록 가르쳐주시였다.

본보기단위로 로동자들의 90%가 녀성들인 평양제사공장(당시)을 정하신 그이께서는 주체36(1947)년 4월 12일 이 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 먼저 가보신 곳이 조사1직장이였다.

당시 조사1직장안에는 앞사람을 가려보지 못할 정도로 증기가 뽀얗게 서려있었고 음침한 천정의 여러곳에서는 물방울들이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있었다. 로동조건과 환경이 한심한 직장의 실태를 료해하신 어머님께서는 공장안에 배풍기를 설치하여 로동자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80℃가 넘는 물에서 고치를 고르는 한 조사공처녀의 작업모습을 보시고는 뜨거운 물에 몸소 손을 담그어보시고 물크러진 그의 손도 쓰다듬어주시였다.

고치의 실끈을 찾느라 빗질을 할 때 뜨거운 물방울들이 튀여나 로동자들의 앞가슴을 적시는것을 보시고는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고무치마 같은것을 만들어 앞자락에 대도록 해야겠다고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공장밖의 가시철조망울타리도 없애고 담장도 낮출데 대해서 이르시였다. 해방전 일제가 강제로 끌어온 로동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공장두리에 5m높이의 울타리를 쌓고 그우에 세겹의 철조망을 늘였던것이 남아있었던것이다.

어머님께서는 우리가 산에서 고생한것도 바로 저렇게 사람을 구속하는 담장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녀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의 상처를 빨리 가셔주자고 하시였다. 합숙을 찾으시여서는 이부자리도 만져보시고 방바닥의 온기도 가늠해보시며 녀성로동자들이 많은것만큼 방을 덥게 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생활을 더 잘 돌보아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어머님으로부터 공장의 실태를 일일이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기류, 모포, 장판지, 문창호지, 빨래판, 세탁기 등을 보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날 어머님께서는 종업원 400명가운데 기능공이 불과 80명밖에 안되는 사실을 료해하시고 기능전습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각지에 흩어져있는 공장출신의 오랜 기능공들을 데려오는 사업과 로동자들속에서 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조직할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어머님께서 공장을 다녀가신 후 이곳 녀성로동자들은 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1947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첫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녀성들의 역할이 더 높아지고 전국의 녀성로동자들이 건국사업에 너도나도 참가하게 되였다.

어머님께서는 이렇듯 해방직후 그 어떤 공직도 가지고계시지 않았지만 녀성들이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해드리시였다.

본사기자

수 기

노래 《빛나는 조국》을 들을 때마다

우리 조국에서는 수많은 명곡들이 창작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그가운데는 노래 《빛나는 조국》도 있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각 노래 《빛나는 조국》을 또다시 들으니 나의 생각은 참으로 깊어만 진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해방된 후 건국의 초행길에서 태여난 노래 《빛나는 조국》은 조국송가로서 공화국의 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국보적인 가치를 가지는 명작이다.

주체36(1947)년 6월 어느날 국가창작을 위하여 완성된 가장 우수한 두편의 노래를 몸소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노래를 《애국가》로 정해주시고 두번째로 들으신 노래도 좋다고 하시면서 제목을 고쳐 그대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그 두번째 노래가 바로 《빛나는 조국》이였다.

2개 절로 된 노래의 가사에서는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긍지높이 노래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을 영원무궁토록 빛내여가려는 철석같은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공화국창건을 한해 앞두고 창작된 이 노래는 지난 70여년간 《애국가》와 더불어 조국의 륭성번영을 이룩해가는 우리 인민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안겨주고 그들의 애국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왔다.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인민들은 《애국가》와 더불어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수십년동안 일제의 총칼밑에 짓눌리여 수탈당할대로 당하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자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재더미와 페허로 화하였던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승리해나가는 사회주의나라로 변모시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공화국이 오늘도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노래가사의 기본사상은 매절에서 《조선아 조선아 영원 무궁 만만세》라는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더욱 강조되고있다.

지난해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창작공연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는 《조선아 만만세》라는 글발을 아로새긴 무인기들의 출현이 대규모의 공연에 걸맞게 공간적깊이와 립체감을 보장하며 수많은 관중들을 매혹시키였다.

5월1일경기장의 밤하늘가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그 글발들을 바라보며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공화국은 반드시 제힘으로 륭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라는 확신을 더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진정 노래 《빛나는 조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인민들의 애국심을 더욱 뜨겁게 달구며 조국땅에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나는 인민정권기관의 한 일군으로서 우리 조국의 위상을 만방에 빛내여나가는데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더 잘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평양시 평천구역인민위원회
과장 김원준

조선은 참다운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국에 대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 인사들이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쿠웨이트신문 《타임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전인류가 리상으로 그려보는 인민의 나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국호와 마찬가지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것이 수없이 많다. 이것은 사회주의조선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건설해나가는 공화국의 투철한 립장의 반영이다.

베네수엘라인터네트홈페지 《엘 끌룹 데 라스 나씨오네스》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특징은 우선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한다는것이다.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국가정책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서방사회에서는 리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수없이 펼쳐지고있다.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등 온갖 형태의 교육이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특징은 또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지향해나가고있다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이를 실행해나가고있다.

꽁고공화국 보건 및 인구상은 조선방문기간에 받은 인상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물질문화생활이 국가적관심사로, 제일중대사로 되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웅장하게 일떠선 병원들의 설비들이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료기술수준도 높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처럼 훌륭한 병원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안내고 마음껏 치료를 받고있는것이였다. 조선에서는 병원뿐아니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알따이공화국지부 위원장은 우리 나라 방문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체류기간 조선에 대한 서방의 선전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여있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정책은 오로지 인민대중이 존엄있고 긍지높은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지향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조선의 사회주의교육제도와 보건제도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집이 없어 거리를 방랑하는 사람들을 볼수 없으며 인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그 어떤 사회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혜택속에 삶을 누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본사기자

상 식

가공방법에 따르는 비단의 종류

우리 인민들은 비단천생산에서 한가지 원료를 가지고도 가공방법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옷감들을 생산하여왔다.

비단의 가공방법에는 생명주실로 짜는 방법(생비단), 생명주실로 짠 다음 재물에 삶아 물들이는 방법(숙비단), 생명주실을 재물에 삶아 이긴 다음 물을 들여서 짜는 방법(참비단) 등이 있다.

생비단은 베나 모시와 같이 약간 빳빳하나 가볍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숙비단이나 참비단은 다른 섬유들에서는 볼수 없는 우아하고 고상한 광택을 내며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비단가공방법은 단, 라, 사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옷감들에 적용되였다.

* * *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의 목소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4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는 발표되자마자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라의 우선방향들을 밝힌 시정연설에서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할것을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제의 각 분야들에서 생산을 늘일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라고 전하였다.

중국국제방송망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 로씨야, 꾸바, 네팔, 인디아, 파키스탄, 까타르, 일본,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수십여개 나라의 많은 출판보도물들은 일제히 《**김정은**최고령도자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 발표》, 《**김정은**위원장 제재를 무시, 자력갱생 강조》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내용을 자자구구 전하였다.

각국의 여러 단체, 조직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을 지지찬동하는 성명 발표, 뿔레찐 발간, 모임 등을 진행하였다.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를 비롯한 스위스단체, 나이제리아, 인디아, 영국, 벌가리아, 오스트리아, 에티오피아, 몽골 등 수많은 나라의 친선단체들과 여러 나라의 개별적인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을 지지하는 성명,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공동성명들에는 이렇게 강조되고있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립경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조선의 정당한 조치들을 지지한다.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되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 인민들은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평화파괴의 주범인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단죄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김정은**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

전인디아농민동맹 총서기 한난 몰라는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 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국가, 세계를 앞서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더욱 훌륭히 전변될것이다, 영웅적조선인민이 자력으로 부강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점령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한다.

몽골에서는 조선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주체연구쎈터, 몽골-민주조선친선다리협회를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등이 참가하여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몽골 조선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발언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조선에서의 국가건설과 활동, 북남 및 조미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밝히신 사상과 로선들은 앞으로 조선이 나아갈 길을 명시한것으로 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본사기자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여

혁신적인 교수방법들을 내놓는다.

소학교시절은 어린이들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소학교에서는 소년시기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일반기초지식과 체육예능교육을 주어 초, 고급중학교의 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렇게 놓고볼 때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포항구역 남강소학교 교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잘하고있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근 40명의 학생들을 수재교육기관인 평양제1중학교와 금성제1중학교, 청진외국어학원, 청진예술학원을 비롯한 상급학교들에 보내고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를 교원들의 실력제고에서 찾고 이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실력평가기준을 바로 정한데 기초하여 교수경연, 교수참관, 모범교수보여주기, 경험발표회를 자주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실력이 높은 교원들을 전국적인 교수경연에 참가시켜 그들이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기가 거둔 성과와 다른 학교 교원들의 성과를 대비하여보면서 새로운 교수방법을 착상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수한 교원들을 배출해낼뿐아니라 적극적인 경험교환을 추동하고 보다 더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였다.

점차 교원들의 전반적인 실력이 오르고 학생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는 새 교수방법들도 련이어 창조되였다.

교장 리혜경은 리금희, 김영순, 김옥순, 남선화교원을 비롯한 여러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로 등록되였고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대렬도 나날이 늘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지금 학교에서는 원격시험프로그람을 비롯한 50여건의 새 교수방법들이 창조되여 수업에 리용되고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학과목소조들과 체육소조, 음악소조교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소조를 지도하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방향에서 과정안을 실속있게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하여 학교의 학생들이 전국 소학교부문 알아맞추기경연에서 3등, 도적으로 진행된 소학교학생들의 외국어회화경연에서 1등, 제44차 정일봉상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소학교부문 탁구경기(도내 선발)에서 남녀단체 1등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경연, 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결국 교원들의 실력제고는 곧 자질문제이며 교원들의 실력과 자질에 의해 조국의 미래가 담보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외국어학습실에서

정보기술학습실

새 교수방법에 의한 수업을 받고있다.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소조원들

수업을 마치고

방문기

재능의 싹을 꽃피워주는 요람

- 평안남도 평성시 옥전유치원을 찾아서 -

우리는 얼마전 평안남도 평성시 옥전유치원을 찾았다.

번듯하게 꾸려진 유치원에서는 우리 말과 노래를 배우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랑랑하게 울려나왔다. 저도모르게 마음속에 깃드는 동심을 안고 유치원에 들어서니 방수영원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높은3반 교양실이였다.

이곳에서는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공부가 한창이였다. 교양원에게서 지명을 받은 장대양어린이가 당돌하게 전자칠판앞으로 다가가 막힘없이 제시된 문제를 풀어냈다. 불과 몇초밖에 안되는 시간에 칠판에 현시되였다가 사라진 6송이 꽃들의 순서를 기억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대양이가 무척 대견스러웠다.

무엇을 또 잘하는가고 묻는 우리의 물음에 대양이는 《타악기와 고음저대도 할수 있습니다.》라고 또랑또랑 대답하는것이였다.

김은경교양원의 말에 의하면 대양이는 예능에도 소질이 있어 4살때에는 타악기를, 5살때에는 고음저대를 배웠는데 이젠 제법이라는것이였다.

이러한 재능은 리의정어린이에게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우리가 어느 한 방에 들어섰을 때 한 어린이가 피아노독주곡 《기럭기럭 기러기야》를 연주하고있었다. 알고보니 이름은 리의정인데 꽃잎같은 두손으로 피아노건반을 누벼가는 그의 모습은 6살 난 어린이의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놀라움을 표시하는 우리에게 최정향교양원은 저 독주곡은 예술학원의 소학교학생들이 배우는것인데 의정이는 벌써 다 숙달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의정이는 유치원에 들어올 때 벌써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기억력과 관찰력이 뛰여나 한번 본 그림책들의 내용을 전부 생동하게 재현해내였다고 하였다.

하나같이 복스럽고 귀엽게만 보이는 어린이들이 지능문제를 척척 풀고 여러가지 악기들도 제법 다루는 모습은 우리의 감탄을 자아냈다.

타악기와 고음저대를 연주하는 장대양어린이

이제 또 어떤 재능을 가진 어린이를 만나볼수 있을가 하는 호기심을 안고 우리가 높은6반 교양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우리들의 솜씨》라고 쓴 칠판에는 의제어린이가 그린 10여장의 그림들이 붙어있었다. 《놀고먹던 꿀꿀이》, 《남새풍년》, 《봄풍경》 등의 크레용그림들은 주제도 다양하였고 인물형상, 자연묘사도 생동하였다.

의제는 자기의 그림솜씨를 우리앞에서 뽐내기라도 하려는듯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몇분 못되여 우리의 눈앞에는 소나무가지에서 창공으로 금시 날아오를듯 날개를 펼친 참매가 나타났다. 그림도 신통했지만 그처럼 짧은 시간에 참매를 그려낸 의제의 재간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바이올린을 잘 타는 김연주어린이, 꾀꼴새로 불리우는 박신영어린이, 자기 키보다 더 큰 가야금을 능란하게 연주하는 박련연어린이…

정말 유치원에는 뛰여난 지능과 예능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았다.

우리가 찾는 유치원들마다에서 만나게 되는 재간둥이들의 모습이 요람과도 같은 이 옥전유치원의 해빛밝은 방들마다에서도 넘쳐 흐르고있었다.

우리는 생각하였다.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다 찾아 꽃피워주는 사회주의요람속에서 어찌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나래를 펼치지 않을수 있으랴.

그 크나큰 요람이 있어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수놓아갈 무수한 재간둥이들, 꽃송이들이 피여난다는것을 다시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옥전유치원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유치원이 자랑하는 재간둥이들

과외시간에

과학기술축전을 통해 본 경쟁열풍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장 황영남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오늘 조국에서는 인재와 과학기술을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으로 내세우고 나라의 과학기술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추동해나가고있습니다.

조국에서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돌리고있는데 해마다 진행되는 과학기술축전 하나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봅니다.

부장: 그렇습니다. 최근년간 조국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과학기술성과들이 적지 않게 이룩되고있습니다.

해마다 년례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여러 과학기술축전들과 각 부문별전람회, 전시회 등을 통해서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면모를 엿볼수 있습니다.

기자: 과학기술축전들과 전람회, 전시회 등이 어떤 규모와 형식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있는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장: 과학기술축전은 주체75(1986)년부터 해마다 진행되여오고있습니다.

30여개 분과별로 과학기술전람회와 전시회 등을 열고 또 구역(군), 도(직할시)의 과학기술위원회들별로 축전을 진행하여 거기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과학기술성과들이 전국과학기술축전에 추천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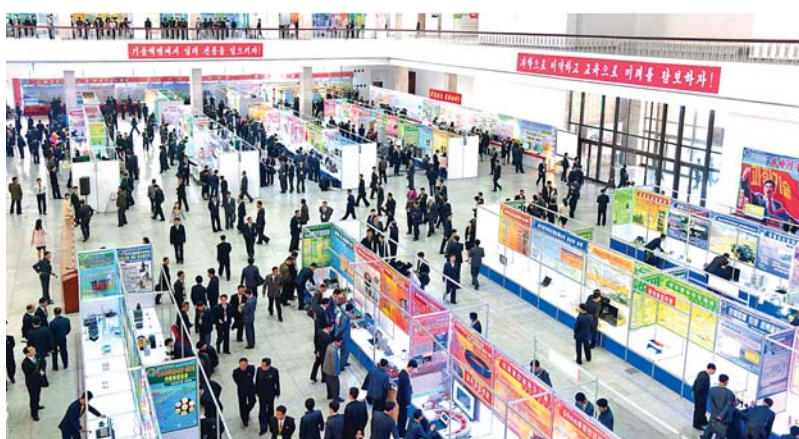
이러한 계기들을 통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성과들이 온 나라에 적극 일반화되고있습니다. 축전에 참가한 수많은 일군들과 과학자들뿐만아니라 참관자들이 자기 단위의 생산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앞선 단위의 과학기술성과와 경험을 통해 배우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어느 단위에서 더 많이 이룩하였는가를 겨루기도 하고 새 제품기술봉사도 적극 진행하고있습니다.

기자: 올해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부장: 전국각지의 우수한 500여개 단위들과 과학자, 기술자,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 1 2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출품된 과학기술성과제안들도 650여건으로서 지난해보다 20여건이나 더 많고 세부적인 기술연구과제들은 2 800여건이나 되며 전시품들도 지난번 축전때보다 210여종에 2 400여점이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제강국건설의 선행부문인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력생산공정에 대한 분산형조종체계, 보이라물관세척 및 부식방지제의 국산화를 실현한 성과들을 비롯하여 금속, 화학, 철도운수, 기계, 채취, 건설건재, 농업, 정보기술, 경공업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이 발표되였습니다.

제34차 전국과학기술축전장

기자: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은 어떤 단위들입니까?

부장: 특등으로 평가된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10여개 단체와 1등으로 평가된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김책공업종합대학 생체공학연구소를 비롯하여 70여개의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장, 우승컵, 축전증서, 금메달 등 해당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기자: 이번 축전을 주최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 듣고싶습니다.

부장: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찾아내여 그들을 장려할뿐아니라 생산과 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도록 하고있으며 어디서나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중시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일군으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여 과학기술성과들을 많이 보고 서로 배워주고 배우며 경쟁의욕을 높여나가는 조국의 현실을 그대로 목격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과학기술축전의 조직과 운영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도입일반화되고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계기로, 경험교환마당으로 되게 하려고 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 * *

우승은 앞에 있다

《이번 우승은 나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나에게는 더 높은 목표가 있다. 그 실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 말은 평양체육단 유술선수 김진아가 경기성과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앞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난 5월에 있은 국제유술련맹 후허하오터그랜드상유술경기대회 녀자유술 57kg급경기에서 1등을 하여 유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진아

경기는 세계순위권내에 들어있는 기술이 높고 로련한 선수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시작부터 치렬하였다.

배심있게 경기장에 나선 김진아선수는 평시에 련마한 특기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맞다든 프랑스, 남조선, 카나다, 중국선수들을 한판이라는 높은 기술적차이로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앞선 경기들을 통하여 진아선수의 특기를 파악한 로씨야선수는 처음부터 허벅다리방어에만 치중하였다. 상대의 전술을 간파한 그는 발목부위의 방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불의적인 빗당겨업어치기로 경기시작 2분만에 한판승을 기록하였다.

우승의 단상에 오른 김진아선수.

어릴 때부터 철봉하기를 좋아했고 남달리 육체적준비가 뛰여난 진아는 10살에 평양체육관 청소년체육학교(당시) 유술소조에 망라되여 자기의 소질을 키워갔다.

머리가 좋고 성격이 쾌활하면서도 침착한 진아에게서 성공의 싹을 찾아본 평양체육단의 김련미감독은 11살인 그를 말아 체

증서와 메달들에 비낀 마음

사람마다 추억깊은 나날들이 있듯이 60고개를 넘어선 룡흥제약공장 기술준비원 고월선녀성에게도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지울수 없는 40여년이 있다.

평양시의 려명거리에 살고있는 그의 집 한개 벽을 꽉 채우고도 남는 증서와 메달들이 지나온 그 나날들에 대하여 말해주고있다.

량강도 대홍단군이 고향인 그는 10살 나던 해에 약초달인물을 먹고 급성소화불량증을 고친적이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마을주변의 산과 들을 찾아다니며 갖가지 약초들을 채집하고 표본책도 만들었다. 약초의 신비한 효능이 어린 소녀의 호기심을 자아냈던것이다.

날이 감에 따라 더욱 깊어져가는 약초에 대한 애착은 그를 황북종합대학 고려약학대학으로 떠밀었다. 대학시절은 그에게 고려약의 특이한 효능과 그 제조방법에 대한 과학기술적기초를 다져주었을뿐아니라 고려약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생활습성과 체질적특성에 맞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주체67(1978)년에 대학을 졸업한 그는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개발하여 민족의 전통의학발전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탐구의 길에 나섰다.

약품의 효능에 대해 토론하고있는 고월선(가운데)

이렇게 첫걸음을 뗀 그는 오늘까지 40여년이라는 인생길을 효능높은 고려약과 새로운 생산공정개발로 이어갔다. 높고험한 산발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약초들을 채취하고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의방류취》와 같은 전통의학서적들은 물론 현대고려약제조기술자료들을 탐독하고 연구분석하면서 100여가지에 달하는 약초들의 유효성분을 밝혀냈다.

그에 기초하여 그는 심장혈관치료용궁궁이단삼팅크, 나노백금고려피부약 등 여러가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있는 고려약과 제조방법들을 개발하였다. 실패의 고뇌와 성공의 기쁨의 련속으로 이어진 그 나날들에는 하나의 주사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18년간을 고심속에 보낸 때도 있다.

주체83(1994)년 의학계에서 뇌혈전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높은 혈전용해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있던 당시 그는 스스로 그 개발을 맡아나섰다. 그는 오래전부터 혈전용해성분을 가지고있는 천연약초로 알려진 궁궁이뿌리를 가지고 혈전치료약을 개발할 목표를 세웠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궁궁이(천궁)의 뿌리에는 피가 잘 돌게 하고 머리아픔, 어지럼증, 고혈압 등 혈액순환치료에 효과가 높은 성분이 있는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치료에 널리 도입되지 못하고있었다.

생소한 길이였지만 그는 북방의 험산들을 오르내리면서 궁궁이뿌리를 채취하였으며 성분들을 분석하고 엑스를 추출하면서 수백차에 걸치는 실험을 진행하여 18년만인 주체101(2012)년에 고려약재로 혈전용해주사약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다기능성천연용해제인 궁궁이혈전주사약은 신약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뇌혈전예방과 치료에서 효능이 높으며 사용주기가 짧고 재발이 없는것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를 받았을뿐아니라 3대혁명전시관에 전시되였다.

궁궁이혈전주사약의 조성과 그 제조방법을 비롯하여 고월선녀성이 고려약과 그 생산방법들을 새로 개발하여 전국과학기술축전과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 등에서 받은 80여건의 증서와 메달들에는 그가 지닌 인간사랑과 애국심이 깃들어있다.

나라의 고려약발전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의 탐구의 길은 계속 이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고월선이 개발한 약품과 그가 받은 메달, 증서들의 일부

계적인 훈련지도를 주었다.

진아가 특기기술을 하나하나 터득하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강도높은 기능성육체훈련과 기술동작들을 숙련하느라 감독과 함께 밤을 새우기도 했고 때로 위장염에 의한 심한 아픔으로 쓰러질 때도 있었다. 그럴수록 감독은 조국의 영예를 떨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며 맥을 놓을세라 힘을 주고 이끌어주었다. 병을 이겨내는 과정이 곧 의지를 단련하는 훈련과정으로 이어졌고 이 나날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 준비되여갔으며 마침내 허벅다리후리기기술과 메치기기술 등 여러 특기기술들을 소유할수 있었다.

그의 강한 의지와 특기기술은 첫 국제경기에서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주체100(2011)년에 진행된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유술선수권대회 녀자유술 44kg급경기와 주체101(2012)년과 주체102(2013)년에 진행된 같은 경기대회 52kg급경기들에 참가하여 련이어 우승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주체102(2013)년부터 국가종합팀에 망라되여 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는 나날 그는 풍부한 경기경험과 기술을 쌓았고 그것을 더욱 세련시켜나갔다.

진아를 맡아 선수로 키워가는 과정에 감독은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그의 정열과 자신감에 자기도 감탄할 때가 많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금메달을 바란다. 그러나 바란다고 그것이 쉽게 차례지지 않는다. 피타는 정열과 끊임없는 노력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무엇이나 주저할 모르고 굽힘이 없는 진아선수의 기질을 나는 잘 알고있으며 이것은 그를 성공에로 떠밀어줄것이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김진아선수, 그는 오늘도 하나의 생각으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성과를 거두었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우승은 앞에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경

아버지 최창호(왼쪽)와 아들 최유송(오른쪽)

부자미술가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것이 특징인 조선화.

조국에는 민족의 고유한 회화형식인 조선화의 매력에 끌려 대를 이어가며 조선화창작에 몰두하는 미술가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실장 최창호(59살)와 그의 아들 최유송(30살)도 있다.

활달하고 박력있는 필치와 열정적이고 독특한 개성으로 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이름이 자자한 최창호실장은 인민예술가이다.

그는 국가미술전람회들에서 9개의 금메달을 받고 중국, 로씨야에서 창작생활을 하였으며 주체97(2008)년에 진행된 제11차 베이징국제예술박람회에서는 최고상인 《가장 훌륭한 예술창작상》을 수여받았다.

그가 그린 조선화 《백두산천지의 겨울》, 《집선봉으로 오를때》, 《청년건설자들》, 《백두산의 눈보라》, 《압록강 굽이굽이》 등의 작품들은 독특한 구도와 강한 색채, 생동한 묘사로 하여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최창호실장의 작품들은 대개가 북방풍경이며 철도로동자들의 생활을 많이 반영하였다.

함경북도 온성군의 철도연선마을에서 나서자란 그는 철도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손금같이 알게 되였으며 이 나날 풍부한 생활체험을 쌓았다.

이 생활체험들은 그가 훌륭한 명작을 창작할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되였다.

그는 창작사에서 창작생활을 하는 30여년간의 기간에도 현실체험에 많은 힘을 넣었다.

백두산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천지를 수십번이나 답사하였고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을 공중촬영하기도 하였다.

눈에 익히고 손에도 익혀 단 한번의 붓질로 백두산을 그려갔고 이렇게 칠보산, 금강산 등 여러 명산들도 답사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이 힘차게 벌어지는 공장, 기업소, 농촌들을 찾아 귀중한 체험을 쌓아나갔다.

이제는 체험부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아무러한 대상도 막힘없이 아름다운 화폭으로 그려내고있다.

최창호실장은 평양미술대학(당시)을 마치고 아들 최유송이 만수대창작사에 배치받고온 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를 앞서야 한다. 네 개성을 살려가거라.》

같은 창작단에서 일하지만 아버지는 언제 한번 아들의 작품에 손을 대지 않았고 그가 자기스스로 개성을 살려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한번은 아들이 《백두산천지》라는 작품을 발표했댔는데 작품을 심의하던 아버지는 크게 노했다.

그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선화 《백두산천지의 겨울》과 창작에 열중하고있는 최창호

《네가 몇번이나 백두산에 올라가보고 이 작품을 창작했니? 사진을 보고 백두산을 따라 그릴수는 있어도 절대로 넋은 그릴수 없다. 다시 그려라. 작품에서 땀냄새가 풍겨야 한다.》

최유송미술가는 화판을 둘러메고 백두산으로 갔다.

백두산으로 가며 그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대원들의 랑만에 넘친 생활도 목격하게 되였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진실한 생활체험을 쌓았다.

또한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의 웅장함과 장중함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 나날 그는 아버지가 말한 땀냄새란 진실한 현실체험을 념두에 둔 말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인간의 내면세계가 짙게 반영된 조선화 《백두의 꽃들》을 창작하는데서 한몫 맡아할수 있었다.

그후 라선시피해지역 주민들이 새 집들에 입사하여 행복넘친 생활을 보낼 때도 그는 그곳으로 가서 인민들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조선화 《따뜻한 겨울》을 창작하였으며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에서 3등을 하였다.

아들 최유송은 현실체험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 조선화 《수송임무를 마치고》, 《복수》, 《꽃시절》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국가적으로 진행된 여러 중앙미술전시회,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시켰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창호실장은 아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한다.

《명작은 손끝에서가 아니라 생활을 사랑하고 생활에 몸을 잠글 때 나오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최유송과 그가 창작한 조선화 《쉴참에》

《교예배우》를 키워내는 조교사들

풍치좋은 대성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중앙동물원은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다.

그 어느곳이나 다 그러하지만 동물들의 재주가 펼쳐지는 물개재주관과 동물재주장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박수갈채가 그칠새없다.

이것은 동물들을 《교예배우》로 키워내고있는 조교사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련희

김남철

재주동물들의 공연중에서

물개와 함께 30여년

물개재주관에는 처녀시절부터 30여년을 조교사로 일해오고있는 김련희공훈사양공이 있다.

처음 조교를 시작했을 때 그는 자기보다 키도 몸집도 큰 물개가 무서워 좀처럼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야생바다동물인 물개에게 물린적도 있었고 먹이를 줄 때뿐이고 짬만 생기면 물속에서 제멋대로 놀아대는 물개때문에 속을 많이 태운적도 있었다.

어떤 때에는 물개의 생리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집이 크다고 하여 한꺼번에 사료를 많이 주었다가 급성위장염에 걸려 1주일간이나 《간호》하던 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동물원에서 침식을 해가며 물개, 조교와 관련한 도서들을 탐독하였고 수영도 배웠으며 기교높은 조교동작들도 하나하나 찾아내여 완성시켜나갔다.

기쁨속에 동물들의 재주를 보는 관람자들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지나간 30년전의 일들이지만 새로 일을 시작하는 젊은 조교사들에게는 귀중한 조교경험으로 되고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키우는 물개들의 재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는 지금 물개뿐아니라 물범, 바다말들의 기교동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젊은 조교사들과 함께 사색과 열정에 살고있다.

인민들과 친숙해진 조교사

동물재주장의 조교사 김남철은 사람들속에 잘 알려져있다. 그 비결에 대해 그는 아마도 자기의 딱친구인 원숭이의 덕인지도 모른다고 웃으며 말한다.

그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여 처음으로 원숭이조교를 맡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14년전이였다.

처음 하는 일이여서 무엇부터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에게 당시 독고영애반장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나 지긋하지 못한 성격인데다 말은 원숭이도 얼마나 장난이 세차고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남철조교사는 몹시도 애를 먹었다.

그러던 어느날 반장은 그에게 먹이만 주면 동물들을 쉽게 다룰수 있다는 짧은 생각에서 벗어나 애호관리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남철은 그후 동물들에 대한 견해를 바로 가지고 원숭이들을 애호관리해나갔다. 점차 원숭이들은 남철을 따르게 되였고 서로 의사도 통하게 되였다. 남철도 원숭이의 움직임을 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수 있게 되였고 원숭이는 남철의 의도에 맞게 동작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길들여졌다.

그의 노력에 의해 《명배우》로 성장한 꼬마원숭이의 재롱스러운 모습은 사람들의 웃음주머니를 절로 흔들거리게 하고있다.

그는 《동물도 정을 주는것만큼, 자기를 사랑하는것만큼 보답한다.》라고 말하며 신진조교사들에게 동물에 대한 애호정신을 심어주고있다.

그는 앞으로 난도높은 조교동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자기를 친근하게 여기는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

한명, 한명 조교사들을 만나볼수록 인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돋보이였다.

보건대 이들은 자기 직업을 무한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이어지는 애국의 대

백철이(오른쪽)

우리 조국에는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중에는 평안북도 운산군산림경영소의 방어리산림감독원인 백철이도 있다.

그를 두고 이곳 사람들은 마치도 친자식자랑을 하듯 숲을 위해 태여난 사람이라고 말하군 한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 어떤 뜨거운것이 자리잡고있는지 사람들은 다는 알지 못하였다. 그의 심장속에는 부모들이 심어준 넋이 불타고있었다.

그것은 수십여년간 중학교교장사업을 해온 아버지가 그에게 심어준것이다. 아버지는 어릴적의 그에게 자기 고향이 조선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의 주인공원형인 강윤경산림보호원(당시)을 배출한 곳이라는데 대해, 그 산림보호원이 전쟁으로 인하여 벌거숭이가 되였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킨데 대해 자주 들려주었다고 한다. 그가 군대에 나갈 때에는 산에 잣나무를 심도록 하였고 초소에서도 고향의 숲을 가슴에 새기고 군사복무를 잘하도록 당부하였다.

그에 대해 백철이산림감독원은 말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편지를 보낼 때면 그 잣나무에 대해 썼고 훈련의 나날에는 한뽐, 두뽐 자랄 나무를 그려보며 힘을 얻군 하였습니다. 그후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와 내가 심었던 나무들을 보니 거목으로 자라 설레이는것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고 내가 조국의 재부를 늘였다는 생각에 마음마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 한생 푸른 숲을 가꾸어갈 결심을 가지게 되였고 그 결심을 누구보다 지지해준 아버지는 고향땅을 빛내인 강윤경처럼 참되게 살라고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였다.

나무모관리에 정성을 바쳐간다.

이렇게 푸른 숲과 더불어 고향의 애국의 대를 이어받은 그였지만 실천은 참으로 어려운것이였다.

당시 그가 맡은 방어리의 적지 않은 산들에는 나무가 거의나 없었고 양묘장 역시 불비한 상태에 있었다. 더우기 그에게 있어서 산림을 조성하는 일은 너무도 생소한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신심을 가지고 산들을 돌고돌며 지대별토양상태를 알아보았고 밤에는 산림학과 관련한 도서들을 탐독하였다. 그리고 산림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산리용반 성원들과 양묘장을 새롭게 꾸리는데 달라붙었다. 그러자니 부족되고 모자라는것이 많았다. 물론 군에서 그를 여러모로 도와주었지만 건설에 필요한 강재와 세멘트는 어방없이 모자랐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그에게 가정에서 저축하였던 자금을 내놓으며 말하였다.

《힘을 내거라. 산림복구사업이 그처럼 어려운것이여서 우리 원수님께서도 산림복구사업을 자연과의 전쟁이라고 선포하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지 않았니. 우리 힘을 합쳐 꽉 고향산천을 훌륭히 가꾸어 가자꾸나.》

아버지의 말은 그에게 힘을 주었고 산림복구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려는 그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하여주었으며 양묘장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내게 하였다. 이어 그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키우는것과 함께 자래운 나무모들을 산들마다에 정성껏 심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이깔나무림, 잣나무림, 밤나무림조성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의 노력에 의해 잡관목만 무성했던 산들이 점차 황금산의 륜곽을 드러내게 되였다.

세월이 흘러 이제 얼마후이면 빛을 보게 되겠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보다 험한 지구로 길을 떠나갔다. 그리고 또다시 돌과 나무뿌리들을 뽑아내고 거름을 듬뿍 내며 양묘장을 건설하였다.

이른봄이면 남먼저 거름을 지고 양묘장으로 나가고 여름이면 산리용반 성원들과 함께 뙤약볕속에서 김매기를 하고 그러다가도 산들을 오르내리며 심어야 할 나무종자와 면적을 가늠하느라 그의 잔등은 늘 땀으로 젖어있었다.

그렇게 애쓴 결과 이 산들에도 어느덧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규모있게 자리를 잡게 되였고 푸른 잎새를 펼치게 되였다. 하지만 그는 그때로부터 얼마후에는 또다시 새로운 지구로 자리를 옮기였으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1 000여정보의 산림을 조성하였다.

숲사이양묘장에서

백철이의 가족

사실 군과 산림경영소 일군들이 그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여러번 새 집을 지어주기 위해 많은 건설자재들을 보내주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 모든것을 양묘장과 축산기지건설에 고스란히 바치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한 그에게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지금 그는 이 나라 공민이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에게 감사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고향산천가꾸기에 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고향땅의 참다운 옛 산림보호원처럼.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왕성한 의욕을 지니고

메아리음향사 사장 김일룡도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있다.

나이 70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자식들의 봉양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히 보내려고 할것이다.

그러나 그의 일욕심은 27년전 사장으로 임명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다.

우리와 만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음향기재제작에서 선진국의 수준에 들어서자는것이 바로 나의 목표입니다.》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였다.

사실 그가 메아리음향사 사장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20여년간 기업소는 몰라보게 변모되고 이곳에서 생산된 음향기재들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있다.

김일룡

특히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제재가 강화되고 그로하여 수입하던 일부 원료, 자재들의 부족은 기업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다.

아들과 제품의 질에 대해 토론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그만하면 괜찮다고 느끼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에 만족을 느낄수 없었다.

일본에서 살던 자기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시켜주고 오늘은 로력영웅으로, 사장으로까지 키워준 조국의 고마움에 비해볼 때 한 일이 너무나 적다고 느낀 그였기때문이다.

눈앞의 성과에 만족해한다면 발전하는 오늘의 시대에서 잠간사이에 뒤떨어진 기업소로 될수 있다는것을 그는 언제나 명심하고있다.

바로 이것은 그의 사업에로 이어졌다.

그는 현 조건에서 음향기재제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설비와 자재와 부분품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모를 박았다.

이를 위해 그는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삼고 종업원들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하는 한편 자신이 이 사업에 앞장섰다. 그의 몸과 마음은 사색과 탐구로 일관되였고 이것은 종업원들의 마음에 불을 달았다.

그의 노력은 곧 열매로 맺어졌다.

각종 음향기재제작에 필요한 수감부를 비롯한 핵심요소들과 여러가지 특수자재들, 부분품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이미 세워진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제품생산공정을 확립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여기서 기본은 지능성음향기재생산공정을 확립하는것이였다.

초행길이다보니 실패가 거듭되였고 나중에는 신심을 잃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현장에서 기술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설계를 완성하였고 어렵고 방대한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며 끝끝내 성공하고야말았다.

하여 그는 얼마전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린이학습용소리연필을 연구개발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지금 메아리음향사에서 생산되는 음향기재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그 질이 비상히 높아지고있으며 인민들의 보다 문명한 물질문화생활과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서 자기의 자리를 뚜렷이 하고있다.

이외에도 다기능탐사기를 비롯하여 현시기 조국의 경제강국건설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음향탐사기재들도 만들어내고있다.

그는 우리에게 《조국앞에 후회없이 떳떳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식들도 조국을 위한 길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게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늘 현장에서

상 식

길 쌈 놀 이

길쌈놀이는 녀성들이 공동길쌈을 진행할 때와 끝난 다음에 즐기던 놀이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마을의 녀성들이 한데 모여 공동으로 길쌈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지난날 입는 문제를 손로동으로 해결해야 하였던 녀성들은 힘겹고 품이 많이 드는 길쌈작업을 공동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마을의 모든 부녀자들은 두레와 같은 형태의 공동길쌈을 통하여 길쌈재간을 키우고 경쟁도 하였다. 끝낸 다음에는 길쌈한것의 량과 질을 평가한 후 유쾌하게 놀았다.

길쌈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불러 피로를 풀었다.

특히 우리 녀성들은 추석날 길쌈놀이를 특별한 놀이의 하나로 여기였으며 《삼국사기》에서도 이에 대하여 전하고있다.

길쌈놀이는 이웃들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서로 돕는 기풍을 세우는 동시에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길쌈작업을 흥겹게 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로동과 휴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일에서 능률을 내게 하는데서도 일정한 의의가 있었다.

*　*　*

상 식

팔베개의 특이한 효과

팔베개가 여러모로 건강에 좋다고 한다.

팔베개를 베고 자면 손으로 누르는것처럼 팔알들이 목부터 뒤머리를 자연스럽게 자극하여 효과가 나타난다.

머리가 아플 때 팔베개를 베고 자면 머리가 닿는 부분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잠을 잘 잘수 있다. 팔베개를 한달정도 베고 자면 머리아픔이 저절로 없어진다.

마싸지나 침치료, 견인치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던 어깨아픔도 한달정도 팔베개를 베고 자면 없어진다.

팔베개가 효과를 나타내자면 적당한 굳기를 가져야 한다.

팔베개의 굳기는 머리를 베개에 놓았을 때 베개가 머리형태처럼 오목해지고 머리를 들면 그 형태가 남아있을 정도면 적당하다.

건강하려면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하는것이 좋은데 팔베개는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하기때문에 머리를 차게 하는데 좋다.

*　*　*

향토를 가꾸어가는 사람들

동창군은 평안북도에 위치하고있는 자그마한 산골군이다.

아마 해방전이나 전쟁시기 고향을 떠난 동포1세대들이 그려볼 이 고장의 모습은 산골화전이 전부일것이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이여서 당시에는 화전을 일구어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조상대대로 태를 묻으며 살아온 땅이여서 동포들은 언제 한번 정든 고향을 잊은적 없으리라 본다.

동창군에 고향을 둔 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전에 이곳을 찾았다.

군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주변의 산들이 매우 울창하고 수려한것이다. 게다가 계곡을 따라 흐르는 산골물이 어찌나 맑고 찬지 한모금만 마셔도 가슴이 찡하였다. 그런가 하면 산새들의 울음소리 또한 산골의 정서를 더해주었다.

그럴수록 이처럼 고향산천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곳 사람들의 향토애가 우리의 가슴에 미쳐왔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 다른 군의 적지 않은 산들이 못쓰게 되였다고 할 때 푸른 숲이 우거진 이 고장 산천의 모습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우리와 만난 군의 일군인 승권대는 《뭐니뭐니 해도 산골군에서 기본은 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잘 가꾸는것과 함께 그것을 잘 리용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기간 군에서는 이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오늘 그 덕을 보고있다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군산림경영소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산림감독원인 최금철을 만나 산의 리용정형을 알아보았다.

그는 우리에게 산들마다에 있는 경제림들은 군의 가구공장과 종이공장, 식료공장의 원료로 리용되고 땔나무림에서 나는 땔감들은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숲사이에 조성한 약초밭과 딸기밭에서 나는 열매들을 가지고서는 군고려약공장과 식료공장에서 효능높은 약품들과 질좋은 음료들을 생산한다는것이였다.

이어 우리는 회골염소목장으로 향하였다. 목장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수십정보의 풀판과 여러 산들에 싸리나무숲, 아카시아나무숲들을 조성하고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꿀벌치기도 대대적으로 하여 해마다 고기와 젖제품들은 물론 꿀도 많이 생산하여 군안의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군에서는 누에치기도 적극 장려하고있었다. 이 사업에서는 주로 녀성들로 조직된 작업반원들이 뽕밭관리와 누에치기를 잘하여 군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주고있었다.

자기 고향, 자기 산천을 가꾸는 사업에서는 남녀구별이 따로 없고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는것이 이곳 사람들의 하나와 같은 마음이였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만부하의 동음높이 당과류와 음료들을 생산하는 군식료공장과 여러가지 목제품들을 생산하여 주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가구공장,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종이공장 등에서도 읽을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대동약수료양소를 더 잘 꾸리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는 군일군들속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취재길을 이어갈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소중한 향토애, 조국애로 고향산천을 가꾸고 거기서 마련된 창조의 열매로 군살림살이를 설계하고 꽃피워가는 이곳 사람들의 보람찬 생활이 참으로 아름다운 화폭으로 펼쳐졌다. 그것은 그 어떤 외부세력의 제재나 압력이 통할수도, 막을수도 없는 자랑스럽고 귀중한것이였다.

우리는 제힘으로 고향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려는 동창군사람들의 지향과 성실한 노력이 앞으로 군의 면모를 보다 전변시킬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대동약수료양소를 더 잘 꾸리기 위해 애쓰는 군일군들

동창군고치생산사업소에서 뽕잎따기가 한창이다.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박해원동생 앞

기쁨을 함께 나눌 그날을 기다리며

동생, 그동안 잘 있었소.

지난 6월 자네랑, 영희동생, 제수랑 평양에 와서 혈육의 정을 나눈 때로부터 여러달이 흘렀지만 임자네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려 잠을 이룰수 없구만.

날과 달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보고싶어지니 말이요.

그래서 혈육의 정이란 말도 나온것 같구만.

난 늘 로친과 자네들 소리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네.

임자네들도 나와 같은 심정이라고 보네.

동생,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나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네.

난 건강해서 잘 있네.

1960년대에 조국에 온 후부터 난 언제 한번 앓아본적이 없네.

그렇다고 내가 건강관리를 특별히 잘한것도 아니라고 보네.

다 국가적혜택이라고 보네.

병이 날세라 예방치료해주고 무료로 교육시키는 조국의 시책들은 하나하나가 다 나와 같은 인민을 위한것이 아니겠소.

동생도 알다싶이 조국에서는 아무리 중한 병이 나도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소. 어디 그뿐이요. 아이들 공부시킬 걱정은 물론 살림집도 국가가 무상으로 배려해주고있지 않소.

오랜 세월 교육부문에서 교원으로 사업하면서 나는 그것을 페부로 절감하였다네.

학생들이 병이 날세라 예방주사를 꼭꼭 놔주고 학교에 나오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놔주군 하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을 보며 조국의 고마움을 새겨안군 하였다네.

어디 그뿐인가.

교원들을 우대해주고 어디 가도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조국, 정말 난 사는 보람이 있었소.

지금은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도 내 나이가 85살이라고 매일 호담당의사가 찾아와 검진한다오. 82살인 우리 로친도 함께 말이요.

그런 생활이 반복될수록 생각도 깊어지네.

그래서 난 조국을 위해 뭔가 하고싶어 이런저런 일거리들을 잡고 보탬을 주는 일을 작건 크건 찾아하고있다네.

우리 로친도 내 일을 적극 도와주고 평양에 올라가 일하고있는 22살 난 손자 박일도 정말 극성이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박일이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학생때 도적으로 언제나 1등으로 손꼽혔다오. 거기에 외국어는 전문가처럼 잘한다네. 그래서 그런지 직장에서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오.

동생, 사람의 한생은 정말 잠간이요.

길지 않은 한생에 사람은 뜻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오.

내가 동생들에게서 바라는것은 단 한가지 어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고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것이요.

그 길에 이 형님과 뜻과 마음을 함께 한다면 더 바랄게 없네.

동생, 철이 바뀌는 계절이니 건강에 주의를 돌리길 바라네.

그럼 동생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기쁨을 함께 나눌 그날을 기다리며 이만 쓰겠네.

그럼 안녕히.

평안남도 숙천군 대성리 42인민반
박철형님으로부터

수 기

대끝에서 대가 난다

세월은 류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내 나이도 82살에 이르렀다.

한생을 마감하게 될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고보니 내가 조국을 위해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자문하게 된다.

내가 이제 젊은이들처럼 근력이 있어 힘을 바칠수 있는것도 아니고 지식이 깊어 지식을 바칠수 있는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어가느라니 문득 20여년전 어느날이 떠오른다.

그날 나는 우연히 조국에서 발간되는 어느 한 출판물을 보게 되였다.

눈부시게 발전해가는 조국, 민족의 넋이 살아 숨쉬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나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아보게 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남편과 두 아들을 키우며 안온한 가정적울타리에서 벗어나본적 없었던 나는 조국을 위해 뭔가 한가지라도 이바지하는 일을 찾아하고싶었다.

그래서 어느해인가 조국에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나는 제일먼저 동포조직을 찾아가 몇년동안 저축해두었던 적지 않은 자금을 내놓으며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1979년에 조국을 처음 다녀온 후에는 나에게도 이렇게 훌륭한 조국이 있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안고 동포사업에 더욱 발벗고나서게 되였다.

내가 무순시지부장의 중임을 맡고 동포들과 합심하여 애국사업에 더 분발하여나서니 남편도 나를 도왔고 두 아들도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안고 건전하게 성장하였다.

동포들은 내가 두 아들을 정말 끌끌하게 잘 키웠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고려리화무역공사 총경리인 맏이 박헌은 몇년째 평양에 상주하고있으면서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일들을 스스로 맡아하고있다. 둘째아들 박치헌은 중국의 어느 한 공사에서 조국과 련계를 맺고 사업하고있다.

조국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는 나를 적지 않은 공로를 세운 조국의 녀성들과 꼭같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불러주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었다.

우리 아들들의 크지 않은 애국적소행을 귀중히 여겨주는 조국의 사랑과 믿음을 받을 때면 동포들은 나에게 《대끝에서 대가 난다고 어머니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있으니 그 가풍을 이어 자식들도 가정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클수밖에 없지요.》라고 말하군 한다.

대끝에서 대가 난다!

사실 불속에서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대나무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신념으로 간직하는것은 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나의 고향은 왕청이다. 왕청지구에는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는 무장을 들고 맞서야 한다는 철리를 새겨안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1930년대초에 꾸리신 유격근거지들이 있었다.

조선의 명천군에서 태를 묻고 자라난 나의 아버지는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왕청에 피나리보짐을 풀었다. 그후 왕청지구에 유격근거지가 꾸려지게 되여 아버지는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배워주며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였다고 한다.

그때를 자주 회고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나의 눈앞에 선히 안겨온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이 가슴속에 자리잡고있었기에 조국의 발걸음에 숨결을 잇고사는 나의 마음도 커갈수 있었던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가정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할 때 그 삶은 더없이 긍지롭고 보람있게 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이러한 말을 들으며 자란것처럼 나도 자식들에게 늘 그렇게 교양하였다.

나를 비롯한 중국에 사는 조선의 해외공민들모두가 이렇게 조선민족된 긍지를 안고 살도록 하여준 위대한 조국을 위해 나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해외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무순시
지부장 김옥순

태양칭송의 노래 부르며

지난 4월 평양에서는 재중동포가수들의 태양절 경축 예술공연이 봉화예술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공연에는 조국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최경호가수뿐만아니라 한선녀, 김학준동포가수들도 참가하였다. 특히 최경호가수의 출연으로 하여 공연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공연은 서곡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삽니다》로 시작되였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리움, 조선민족의 자랑안고 언제나 백두산을 우러르며 사는 재중동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구가한 가수들의 노래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를 높은 사상감정과 섬세한 예술적형상, 진실한 연기로 부른 최경호가수는 《조선아 다시 안아보자》, 《고향집 달밤에》, 《장군님 따르는 마음》 등 절세의 위인들을 칭송하는 노래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이 깊은 감동속에 잠기게 하였다.

풍만한 성량을 가진 김학준가수는 《위대한 사랑의 길》, 《일심단결 닐리리》를 잘 불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어릴적부터 음악신동으로 불리웠던 그는 소학교시절에는 트럼베트를 잘 불어 소문을 내였고 중학교때부터는 성악으로 사람들을 놀래웠다.

일약 연변가무단의 전도유망한 성악배우로 자라난 그는 지난 기간 중국에서뿐아니라 조국에서 진행되는 위인칭송의 국제적예술축전인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과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도 여러차례 참가하여 금상을 수여받았다.

이어 무대에 출연하여 《수령님 사랑속에 우리 행복 꽃피네》,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내 마음 언제나 그이곁에》를 비롯한 노래들을 잘 형상한 한선녀가수도 재능있는 대중가요가수로서 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진 배우이다. 그 역시 수많은 공연에 출연하였으며 태양절경축공연에서 노래를 잘 형상하여 금상을 수여받은 배우이다.

하기에 동포들은 그를 《연변의 자랑》으로 부르며 사랑하고있다.

그가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 《내 마음 언제나 그이곁에》를 감동깊이 불렀을 때 관람자들은 눈굽을 적시였다.

노래는 몸은 해외에 살아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심정을 담고있었다.

공연무대에는 겨레의 통일념원을 담은 노래들도 올라 장내를 통일열기로 끓게 하였다.

공연이 끝난 후 관람자들은 인상깊은 무대를 펼친 동포가수들을 열광적으로 축하해주었다. 동포가수들도 이에 화답하여 오래도록 무대를 내리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후 최경호가수는 《나의 노래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조국인민들의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태양칭송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선녀, 김학준가수들은 자기들이 이번 공연에 참가한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국인민의 사랑을 받는 독창가수로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재중동포가수들이 공연을 한지도 이제는 여러달이 지났지만 그들이 봄계절에 부른 절절한 흠모와 그리움의 노래들은 오늘도 조국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　평

공훈배우 최경호

한선녀

김학준

27년전의 봄날

조국방문의 길에 오를 때면 나는 류다른 추억에 잠기군 한다.

27년전의 봄날에 대한 추억이다.

그 때 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80돐경축행사에 계주단성원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난생처음 조국땅을 밟는 나의 심장은 높뛰기만 하였다. 이 땅이 바로 조상들이 태를 묻고 살아온 조국이여서 그런지 듣던것과는 달리 모든것이 고향에 대한 향취로 안겨왔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에서 조국인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나의 마음은 어느새 친정집에 온 기분에 휩싸이였다.

정말 매 날과 날이 기쁘고 즐겁기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우리 계주단성원들을 만나주시였으며 자신의 곁에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태양같이 환하신 그이의 모습을 처음으로 뵈옵는 나는 너무도 감격해 계속 눈물만 흘렸다.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그날의 사진을 가보처럼 정히 간수하고있다.

그 나날 조국도 많이 변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것은 우리 동포들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따뜻한 사랑이다.

그것이 있어 나는 녀성의 몸으로 남자들도 하기 힘든 바다일을 웃으며 해오고있으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조국을 그려보며 힘을 얻군 한다.

사람은 저 하나만이 아니라 진정 어머니조국을 위해 살 때 그 삶이 더욱 아름답고 고결해지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허상숙

고국을 알려거든

이번에 나는 처음으로 고국방문길에 올랐다.

말로만 듣고 한번도 와보지 못한 고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이름할수 없는 감격에 젖어들었다. 아마도 고국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것 같다.

고국에 발을 디디니 아버지, 어머니가 옛말처럼 해주던 지나간 이야기들이 떠오르며 절로 정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고국은 어제날 부모들이 말하던 고국이 아니였다.

나는 경치아름다운 만경봉과 주체사상탑 전망대에서 평양시를 부감하고 모란봉에도 올라가보았다. 즐비하게 일떠선 거리들과 살림집들, 현대적인 건축물들, 어디 가나 넘쳐나는 인민의 웃음소리…

정말 보고듣는 모든것이 새로왔으며 찬탄을 자아냈다.

특히 모란봉에서 고국의 노래인 《세월이야 가보라지》를 부르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있는 로인들의 모습을 보니 생각도 깊어졌다. 노래는 감정의 분출이라고 좋은 제도가 아니고서야 이런 노래가 창작될수도 없고 또 불리워질수도 없는것이다.

지금 서방세계에서는 고국을 알고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사는 나라라고 선전하고있다.

그러다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선전에 포로되여있고 또 그것을 곧이 믿고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국의 현실을 보여주고싶어 여러장의 사진을 찍었다.

나는 로씨야에 가면 그들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고국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는 나라이며 발전전망이 확고한 나라이다, 고국을 알고싶거든 평양행을 하라,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의 참뜻을 평양에서 찾아보라고.

로씨야 싸할린주
꼬르싸꼬브시 리태준

밑거름이 된다면

올해 4월 태양절을 맞으며 내가 근 70명이나 되는 동포들을 데리고 고국을 방문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의미있는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번 걸음은 내가 몇년전부터 머리속에서 구상해오던것이였기때문이다.

내가 살고있는 중국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살고있다. 그들중에는 고국에 가본 사람보다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다나니 그들은 고국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는것은 물론 제3자가 고국에 대하여 좋다고 하면 좋다고 믿고 나쁘다고 하면 나쁘다고 믿을 정도이다.

한번은 단동, 대련, 연길에 있는 동포들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몇가지 유모아를 했더니 그들은 나를 보고 참 박식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래서 내가 고국에서 배운것이라고 말하니 그들은 고국인민들이야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있지 않는가고 나에게 묻는것이였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허구프게 웃고말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고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하여 파악할대로 파악하였다.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뭉친 일심단결도 고국에만 있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성과를 이룩하는것도 고국이였다.

고국인민들은 자주정신이 투철하고 머리도 좋다. 력사적으로만 보아도 금속활자, 고려청자기, 측우기, 거북선 등을 창안제작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웠고 오늘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총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었다.

이러한 고국의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다나니 동포들은 고국에 대한 허튼 선전에 물젖어있었으며 지어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고국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것보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싶었다.

한사람이 보면 열사람에게 말할것이고 열사람이 보면 백사람에게 전파할것이다.

중국 단동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사업을 하던 나는 고국방문기회가 조성될 때마다 협회의 사람들을 묶어서 보내였으며 그들이 머무르는 기일을 연장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나는 올해에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회장의 사업까지 맡게 되면서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밀게 되였다.

협회안에 청년협회, 배구협회, 료리협회, 애심협회 등을 조직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나가도록 하였으며 고국을 다녀온 동포들이 경험담을 이야기하여 다른 동포들이 고국의 문화라든가, 현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였다.

이런 사업이 반복될수록 협회의 모든 동포들은 고국을 그리워하게 되였고 저저마다 가보고싶어하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그들을 이끌고 화창한 봄날 평양행을 하게 되였다.

평양방문의 하루하루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동포들은 마음속에 품고있던 물음표들을 감탄표로 바꾸었으며 때늦게 온것을 후회도 하였다.

그 나날 해외동포사업국 일군들과의 우호적인 배구, 바줄당기기경기도 조직했더니 동포들이 너무 좋아 말이 아니였다.

매일 저녁 숙소에서 동포들은 그날 평양을 돌아본 소감들을 나누면서 고국에 대한 리해를 두터이하였다.

어느날 저녁식사를 할 때 대련시에서 온 김명옥동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았어도 이렇게 값진 려행을 하기는 처음입니다.》

멋있는 표현이였다. 정말이지 이번 고국방문은 값진 려행이 아닐수 없다.

공기 맑고 사람들이 친절하며 아름다운 나라인 고국.

자기 힘으로 부를 창조하며 흥해가는 고국을 제 눈으로 봐야 그 진가를 알수 있는것이다.

사람은 고국을 잘 알 때 고국을 위한 좋은 일들도 더 많이 할수 있는 법이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협회성원들이 고국을 위한 애국사업에 밑거름이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
교류협회 회장 심청송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5)

645년과 647년 고구려에 대한 두차례의 대규모적인 침략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침략자들은 거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고구려를 정복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것을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만회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침략자들은 고구려의 국서에 《거짓》이 많고 자기 나라들의 사신에 대하여 《거만하게 대한다.》느니 뭐니 하는따위의 생트집을 걸면서 위협해나섰으나 고구려는 그때마다 침략자들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침략자들은 외교적압력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자 648년에 또다시 고구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648년 1월에 3만명의 침략군이 바다길로 고구려에 침입하였지만 도처에서 고구려군의 호된 타격을 련속 받았다.

그래도 침략자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6월경에 박작성으로 기여들었으며 이곳에서는 적아간에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였다.

부자간이 다 고구려와의 전쟁에 참가하였던 침략군의 장수는 전함들을 끌고왔다.

박작성을 지키던 고구려의 장수 소부손은 자기 휘하의 보병과 기병 1만명을 거느리고 적을 도중에서 치려고 성밖으로 나갔다가 력량상 대비가 안되여 얼마간 손실을 당하고 물러나 성으로 다시 들어왔다.

험한 산세를 리용하여 쌓은 성인 박작성은 방어력이 매우 강하였으며 적들이 아무리 공격하여도 함락할수 없는 성새였다.

성주 소부손의 지휘밑에 박작성의 군민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적들을 호되게 답새겼다.

창과 화살이 비발치듯 적들의 머리우에 쏟아지고 그에 뒤질세라 불뭉치와 돌벼락이 날아내렸다.

성벽우에서 쏟아져내리는 화살소나기, 불소나기, 바위소나기로 하여 침략자들은 도저히 성벽에 붙을수 없었다.

성밑에는 화살에 맞아죽고 찔려죽고 불타죽은 시체들이 너저분했다.

적들이 박작성을 바라보며 헐떡거리고있는 사이에 고구려군의 장군 고문이 여러 성의 군사 3만명을 이끌고와서 거꾸로 적들을 포위함으로써 형세는 완전히 역전되였으며 침략자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였다. 사태가 불리하게 되자 적군은 증원을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적들은 고구려의 드센 공격앞에 도저히 지탱할수가 없어 결국 8월에 숱한 주검만을 고구려의 들판에 널어놓고 도망치고말았다.

적장수는 귀국후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살이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니 648년 전쟁에서 적들이 당한 참패상이 얼마나 극심하였는가 하는것은 가히 짐작할만 한것이다.

그런데도 침략군의 우두머리는 전쟁광증을 버리기가 아까운지 또다시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다가 649년 4월에 병을 만나 죽어버렸다.

죽기직전까지도 고구려에 대한 침략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그는 림종에 이르러서야 고구려침공을 중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아마도 저승에 가서도 지옥에 떨어지고싶지 않았던 모양인지 아니면 죽는 그 순간에나마 리성이 작용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이렇듯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648년의 전쟁도 고구려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이처럼 고구려를 정복하려던 침략자들의 침략기도는 나라의 자주권과 영예를 고수하기 위하여 일떠선 고구려의 인민들과 군사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완전히 분쇄되였다.

고구려인민들은 력사상 전례없는 대규모적인 반침략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량대훈

야 화

속량을 받은 고두쇠

어느해 여름 충청도 청주의 원으로 리가성을 가진 량반이 부임되여왔다.

그런데 이때 어디서 생겨난 말인지는 모르나 새로 온 원이 글을 잘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였다.

아전들은 원을 한번 중떠보기로 약속하고 어느날 우정 어려운 한자를 골라 초서(흘려쓰는 글)로 쓴 소지(청원하는 글)를 바치였다.

그 소지를 받아들고 들여다보던 원의 얼굴은 컴컴하게 변해갔다.

(옳지, 정말 읽지 못하는구나.)

(아니, 중떠본다는것을 눈치챈것이 아닐가?) 하고 아전들이 눈짐작으로 가슴을 조이고있는데 문득 열댓살 난 관노녀석이 쪼르르 달려들어와 종이 한장을 원에게 바치였다.

《마당을 쓸다가 이상한 종이 한장을 얻었으니 안전께 바치옵니다.》

무심히 종이를 받아본 원은 즉시 아전들에게 모두 붓과 종이를 가지고 대령하라고 호령하였다.

《이제부터 너희들을 잠간 시험할터이니 묻는 말에 대답하거라. 우물에 돌을 던지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원이 말했다.

아전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호장이 대답하거라.》

《예, 저- 우물에 돌을 던졌으니 물이 튀는 소리가 퐁당- 할줄로 아옵니다.》

《리방이 말해보아라. 뱀이 풀밭으로 기여갈 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

《예, 저- 뱀이 기여가며 풀을 건드리니 바스락소리가 나는줄로 아옵니다.》

원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모두들 붓을 들고 〈퐁당〉, 〈바스락〉이라고 써라.》

한자를 잘 안다고 원을 골리려들던자들이 순식간에 문맹자가 된듯이 붓방아만 찧었다.

《모두 손이 얼어붙었느냐?》

원의 말은 추상같았다.

이때 질청(아전들이 일보는 곳)의 우두머리인 리방이 한걸음 나서며 아뢰였다.

《황송하오나 안전께서 분부하시는것은 글에 없는지라 공자나 맹자라도 쓰지 못할줄 아옵니다.》

그러자 원이 또다시 성을 냈다.

《뭣이, 어찌구 어째? 〈우물 정〉자 가운데 점을 하나 찍으면 〈퐁당〉이구 〈뱀 사〉자 아래에 〈풀 초〉자를 쓰면 〈바스락〉자가 되는줄도 모른단 말이냐?》

아전들은 입을 딱 벌리고 아연실색하여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이제 또 덜된 소지를 들고 다니며 관장을 속이는 놈은 물고(때려죽이는것)를 내고말터이니 그리 알아라.》

원은 싸늘한 눈길로 아전들을 바라보더니 찬바람을 씽씽 일구며 내아로 들어가버렸다.

그날 저녁 원이 관노아이를 불렀다.

《애야, 네가 가져온 그 종이를 어디서 주었느냐?》

《주은것이 아니라 소인이 적어올린것이옵니다.》

《아니, 네가?》

《황소하오나 소인이 평소부터 아전놈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것이 분해서 한번 설분을 해볼 기회만 엿보던차에 그날 아침 아전들이 안전께 버릇없이 굴기에 감히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용서해주십시오.》

《음- 그런데 글은 어디서 배웠느냐?》

《어릴적부터 관청마당에서 자라면서 귀동냥도 하고 어깨너머로 글을 읽어 천자문을 떼였소이다. 독서백편이 의자견이라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도 백번만 읽으면 뜻이 절로 통하는줄 아옵니다.》

《허-》

원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신분은 천하고 나이가 어렸지만 이 애가 사모관대를 하고 앉은 자기보다 열배, 백배나 더 훌륭하다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부터 원은 고두쇠라는 이름을 가진 이 관노를 늘 옆에 끼고 고을의 정사를 보았다.

1년후 고두쇠는 속량(종의 신분을 벗겨주는것)을 받고 관노신세를 면하였다고 한다.

* * *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9)

평안남도의 특산－건뎅이젓

예로부터 산좋고 물이 맑아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어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있으며 일찍부터 젓갈문화가 발전하여왔다.

혼례를 위한 례물로 젓갈이 쓰이였다는《삼국사기》의 력사기록이나 고려사람들이 새우나 조개로 젓갈을 만들어 누구나 즐겨먹었다는《선화봉사고려도경》의 력사기록들은 우리 인민들이 젓갈을 식생활에 리용하여온 력사가 매우 오

래다는것을 보여준다.

젓갈은 짭짤한 맛과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있어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어줄뿐아니라 비타민, 단백질, 칼시움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성분이 풍부히 들어있어 건강에도 매우 좋다.

젓갈은 명란젓, 창난젓, 조개젓, 새우젓, 건뎅이젓, 멸치젓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종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건뎅이젓은 평안도를 비롯한 서해안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즐겨먹어온 젓갈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건뎅이는 건뎅이목에 속하는 새우새끼모양의 갑각류로서 우리 나라 서해와 동해안에 퍼져있다.

일반적으로 건뎅이젓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건뎅이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찌운 다음 소금을 뿌려 용기에 넣고 봉인하였다가 잘 삭은 다음 여러가지 조미료들을 넣고 버무려 두면 된다.

건뎅이젓과 관련한 기록들은《조선봉건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력사문헌들을 통하여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건뎅이젓은 서해안 중부지방들에서 바치는 공물중의 하나로 되였으며 다른 나라들과도 거래되는 무역품이였다고 한다.

1825년에 편찬된《림원십륙지》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건뎅이젓을 그대로 밥찬으로 먹기도 하고 김치를 담글 때 양념감으로 넣어 그 맛을 돋구기도 하였으며 건뎅이젓에 풋고추나 풋마늘 등 여러가지 남새들도 섞어 다양하게 가공하여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금산포젓갈가공공장에서는 건뎅이젓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젓갈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조명철

유모아

이상한 짐승

어머니가 아들애에게 말을 배워주고있었다.

《꼬끼요, 꼬끼요 하는건 뭐라고 하나요?》

《닭이라고 해요.》

《박박, 박박 하는건 뭐라고 하나요?》

《오리라고 해요.》

《꿀꿀, 꿀꿀 하는건 뭐라고 하나요?》

《돼지라고 해요.》

불쑥 아들애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야, 야 하는건 뭐라고 하나요?》

《야, 야 하는 짐승은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랑 나보구 야, 야 하지 않나요?》

《…》

* * *

《금강산전설집》을 펼치고

먼 옛날 금강산의 아름다운 옥류동에는 부지런하고 선량한 한 나무군총각이 살았습니다.

어느날 총각은 산에 올라 나무를 잔뜩 해놓고 시원한 그늘밑에 앉아 피리를 불다가 사냥군에게 쫓기는 어린 사슴 한마리를 구원해주었습니다. 사슴은 총각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팔담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데 어느 한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를 안해로 삼을수 있을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선녀를 안해로 삼은 후 아들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그는 안해가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던 사슴의 말을 지키지 못하다나니 안해와 아이들과 헤여지게 되였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선녀는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나무군총각을 만나 행복하게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 다시 내려옵니다.

동포여러분,《금강산전설집》에 담겨져있는 많은 전설들가운데서 제일먼저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외금강구역의 상팔담에 깃든 이《금강산팔선녀》였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의 명산, 세계의 명산으로 손꼽히고있는 금강산은 수천년전부터 아름다운 전설들을 수많이 낳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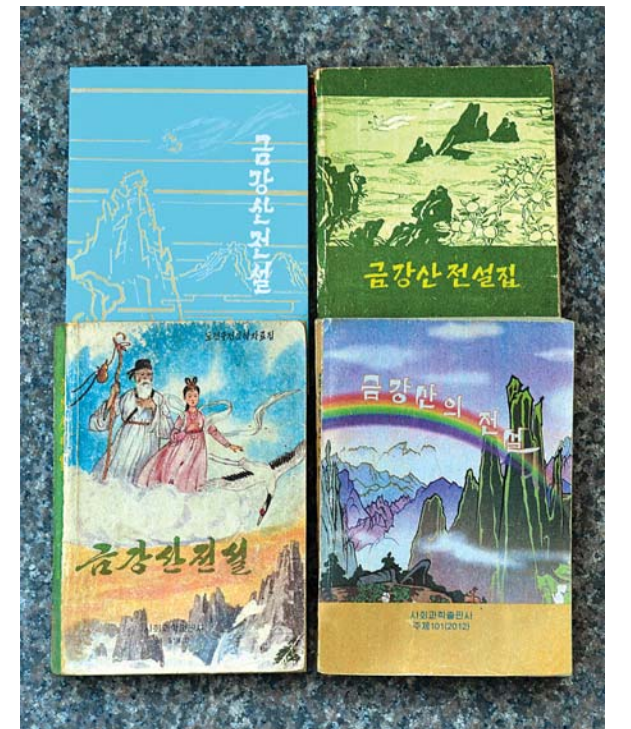
다양하고 웅장하며 수려하고도 기이한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있어 우리 나라의 5대명산, 조선8경, 3신산의 하나로 알려져온 금강산은 산악미, 계곡미, 고원경치, 전망경치,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 등을 다 갖추고있어 단순한 하나의 명승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을 한곳에 모아놓은것만 같습니다.

지난해 조국에서는 금강산의 일만경치를 형상원천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되여 세세년년 전하여온 백수십편의 금강산전설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지금《금수강산》잡지를 보고계시는 동포여러분들가운데는 금강산을 다녀가신분들이 적지 않을것입니다.

금강산탐승에 올랐을 때 여러분은 아마 외금강이며 내금강, 해금강구역의 그 어디에나 깃든 전설들을 구수하게 이야기해주는 안내원처녀들의 해설을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시간이 언제 흐르는지 알지 못하였을것입니다.

금강산전설을 구체적으로 보면 옛날 어떤 왕이 하루동안 놀려고 금강산에 왔다가 경치가 하도 좋아 3일동안 놀고 갔다는 삼일포전설, 어느 한 마을의 마음씨착한 처녀가 금강산에 홀로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의 도움으로 하늘나라에만 있다는 천계꽃을 구하여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마을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천선대 천녀화장호전설, 구룡연계곡의 아름다운 자연미에 취하여 돌아갈 생각을 잊어 두눈을 부릅뜬채 그냥 바위로 굳어졌다는 개구리바위전설 등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금강산의 맑은 물에 목욕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감투벗은 옥황상

제바위전설, 도토리를 먹으려고 뛰여내리던 곰이 중관음봉 벼랑중턱의 바위에 뒤발이 빠져들어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둔중한 궁둥이를 바위에 붙인채 목을 길게 뽑아 주둥이를 헤 벌리고 문주담을 게걸스럽게 내려다보며 굳어졌다는

고려시기의 시인 김극기

김극기(12세기말－13세기초)는 고려 후반기에 랑만주의적경향의 시작품들과 함께 사실주의적경향의 우수한 시작품들을 많이 창작한 진보적인 시인의 한사람이다.

일찌기 진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은 하지 않고 시골에서 살면서 자연을 즐기였으며 창작에서 락을 찾았다.

그는 림춘(12세기 후반기)을 비롯한 해좌칠현의 문인들과 깊이 사귀면서 그들의 사상적영향을 많이 받은것으로 하여 창작적경향에서 이들과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김극기는 나라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과 접촉하였으며 비참한 농촌현실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다. 이것은 그의 창작에서 사실주의적경향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게 한 생활적바탕으로 되였다.

김극기의 작품들은 135권으로 된 《김거사집》에 묶이여 출판되였다.

《김거사집》은 김극기의 집에서 찾아낸 유고를 정리한것으로서 고시, 률시, 사륙문, 잡문 등을 싣고있다. 현재 《김거사집》은 남아있지 않고 그에 대한 일부 자료가 《용재총화》, 《동문선》 등에 실려있다. 현재까지 남아서 전해지는 김극기의 작품은 대략 200여편인데 그중 150여편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인용되여있다.

그가 창작한 시 《취해서 부른 노래》는 랑만주의적경향의 대표적작품인 동시에 가장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시는 무인통치배들을 폭로규탄하고 그들을 모조리 없앨데 대한 지향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에서 랑만주의적경향은 시인의 포부를 실현할수 없는 당대의 모순된 사회현실과 그에 불만을 품고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사상적지향의 충돌로부터 흘러나오고있다.

이러한 랑만주의적경향은 다른 시들인 《늙은 어부》, 《황산강》 등의 작품들에서도 표현되고있다. 시 《농사집의 네절기》, 《촌집》, 《봄날》 등은 사실주의적경향의 우수한 작품들이다.

78행에 390자로 된 시 《농사집의 네절기》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특성과 그에 따르는 농민들의 로동생활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생활처지, 농촌의 생활풍습, 아름다운 인정세태 등을 폭넓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김극기는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하여 당대의 현실을 대하였고 문인량반들의 계급적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비판적기백이 높은 랑만주의적경향의 작품들과 당시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처지를 생동하게 그려낸 사실주의적경향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고려 후반기 진보적시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 * *

곰바위전설…

삼선암전설, 집선봉전설, 무지개다리전설, 백도라지전설, 총석정의 부부바위전설, 금란굴의 불로초전설 등 짚아볼수록 금강산에 다시한번 가보고싶은 마음이 부쩍 동할것입니다.

이렇듯 금강산전설들에는 천하제일명산인 금강산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라도 끝없이 사랑하고 온 세상에 자랑하려는 우리 인민의 애국심과 금강산의 절경을 생동하게 묘사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혜가 깃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금강산의 절경에 반해, 조국의 자연에 대한 사랑을 안고 많은 명시를 남긴 옛 시인 김삿갓(1807년－1863년)의 시 한구로 글을 마감할가 합니다.

한걸음 두걸음 세걸음
걸음마다 서서 정신잃고 바라보니
산은 푸르고 돌은 흰데
사이사이엔 꽃이 반겨웃는도다
만약 화공에게 저 경치를 본따서
그림을 그리라 한다면
숲속의 저 새소리는 또 어떻게 할고?

본사기자 연옥

남포시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

- 덕흥리벽화무덤 -

덕흥리벽화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고구려벽화무덤이다.

무덤은 408년에 축조된 인물풍속도를 그린 두칸무덤이다.

무덤칸의 벽과 천정에는 여러가지 내용의 그림들과 그것을 설명하는 600여자의 글자가 씌여져있다.

안길 좌우벽에는 문지기괴물과 인물들을 그렸다.

앞칸의 벽과 천정에는 주인공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건들과 신앙세계를 반영한 그림들이 그려져있고 그에 대한 설명문을 주었다.

거기에는 무덤의 주인공이 고구려의 대신이였던 진이며 그가 지녔던 관직과 래력, 나이 77살에 죽어 이곳에 묻혔다고 서술되여있다.

안칸에는 주인공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던 장면들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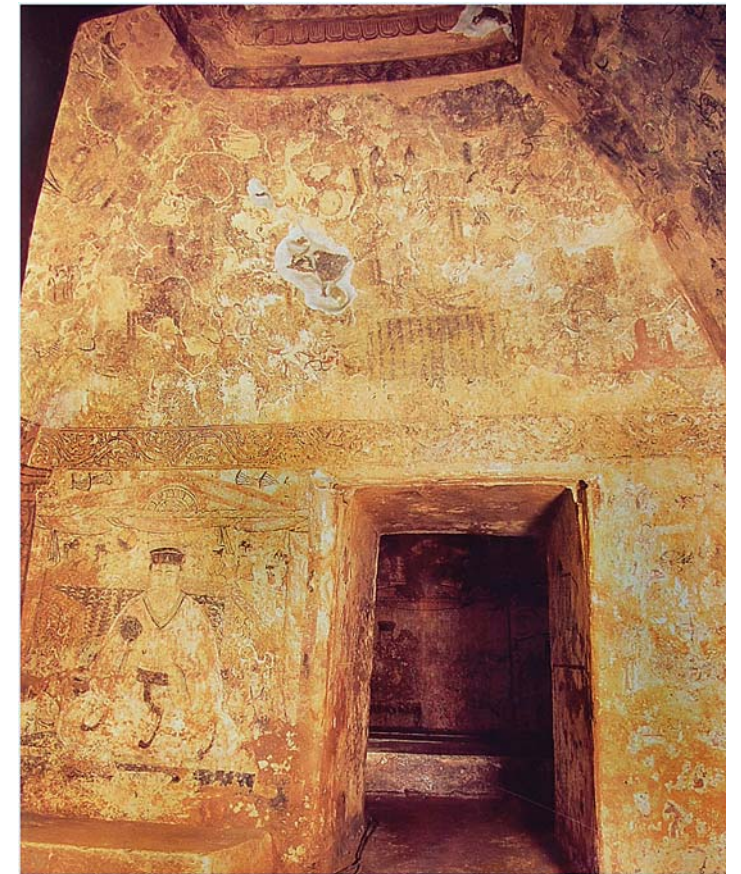
여기에서 가장 흥미있는것은 서쪽벽에 묘사된 말을 타고 활쏘기하는 그림이다.

북쪽벽에는 큰 집을 상징하는 장방속에 앉은 주인과 그의 시중군들을 그렸으며 안주인은 없이 그에게 복무하는 시중군들만 그렸다.

안칸 북쪽벽의 구조와 벽화

안칸에는 이밖에도 주인이 타는 큰 말, 여물을 먹는 말과 소, 여물을 써는 아이들, 수레와 건물들, 크고작은 련꽃 등이 그려져있고 네모서리에 여러가지 장식무늬를 그렸다.

앞칸과 안칸의 사이길 좌우벽에는 주인공부부의 나들이장면이 그려져있다.

덕흥리벽화무덤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벽화무덤들가운데서 무덤의 주인공과 그 축조년대를 정확히 알수 있는 유일한 무덤일뿐아니라 풍부한 벽화와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4세기 후반기－5세기초 고구려의 강대성과 당시 동방정세의 일단,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와 풍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문화의 보물고이다.

본사기자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9)

- 정 방 산 -

조국의 명승지들중에는 고적도 많고 명승지, 유원지로서도 이름난 정방산도 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정방산은 산마루들이 서로 잇닿아 정방형을 이루고있다는데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였다고 한다.

해발높이가 481m로서 정방산은 주변산들에 비하여 제일 높고 일망무제한 재령벌을 끼고있어 그 생김새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방산에는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들과 해발높이 100m이상의 기암절벽들이 키돋움하며 솟아있고 많은 전설을 담고있는 약수터와 갖가지 꽃들이 울창한 수림과 한데 어울려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펼쳐보인다.

산에는 소나무를 기본으로 하여 수십종의 나무들과 노루, 오소리, 너구리, 다람쥐, 꿩, 매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정방산에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있다.

그중에는 고려시기에 정방산의 험한 산세를 리용하여 쌓은 이름난 돌성인 정방산성이 있다.

정방산성은 고려시기에 처음 쌓은 뒤 1632년－1635년에 크게 보수하였다. 성의 둘레는 12km이다.

정방산성은 우리 나라 서해안일대에서 남북으로 통하는 기본통로를 막아선 황해도지방의 제일가는 요새로 일러왔다.

성에는 좌우의 진들을 통솔하는 본영이 있어 이 일대의 요새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592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의병부대들은 이 성을 근거지로 하여 주변일대를 넘나들며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성안에는 고려시기의 유명한 절인 성불사가 있으며 절에는 목조건물인 응진전, 극락전, 명부전, 청풍루, 운하당, 산신각과 석조물인 5층탑이 남아있다.

이밖에도 성의 남문에 들어서면 19세기 정방산성의 성장이였던 김성엽의 업적을 새긴 김공성장비가 있다.

오늘 문화휴식터로, 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진 정방산으로는 수많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찾아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정방산성 남문루

성불사를 찾은 동포들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는 북남선언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겨레의 력사적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내외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지금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8(2019)년 4월에 하신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때의 초심으로 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들에는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판문점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언이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그것을 떠나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민족분렬의 력사는 북과 남이 대결의 격화로 얻을것이란 분렬의 지속과 전쟁의 참혹한 재난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었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을 천명함으로써 오랜 세월 대결의 랭기가 서려있던 이 땅에는 평화의 기류가 감돌게 되였다.

민족의 총의를 반영하여 채택된 9월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선언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구절구절마다에는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정신과 함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선언에는 북남사이의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조선반도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다시 잇고 단일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간절한 념원이다.

나라가 분렬되여 7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느 하루도 조국통일의 기치를 내려본적이 없다. 조국통일의 길에는 우여곡절도 많고 시련과 난관도 겹쌓였지만 그 무엇도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신념을 꺾을수 없었다.

겨레의 드높은 숨결과 통일의지가 비낀것이 바로 9월평양공동선언이다.

선언이 해내외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주체107(2018)년에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마침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북과 남이 힘을 모아 민족의 기상을 떨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조선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또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할 때만이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다는것을 확신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참으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시대의 요구와 통일운동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뚫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민족공동의 대강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박사 김경철

정국을 어지럽히는 란동

남조선의 《자한당》이 정국을 어지럽히는 란동질을 계속 일삼고있다.

이 당의 성원들은 여러 정당들에 의해 《국회》에서 《주요개혁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국회》청사밖으로 뛰쳐나가 란동을 부리였다.

그리고는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장외집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좌파세력의 날치기 쿠데타》니, 《좌파독재》니 뭐니 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한 《국회》앞에서 삭발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민생대장정》광대극을 연출해내고 부산, 대구, 광주 등을 돌아치며 집권세력을 헐뜯는 각종 집회들을 련일 벌리다 못해 얼마전부터는 《정책투쟁》이라는것을 고안해내여 정국을 소란케 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이 당소속 《국회》의원이라는자는 현 정권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해버려야 한다고 악담질을 하였는가 하면 이자들의 부추김을 받은 극우보수깡패들은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행까지 가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에 앞서서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세월》호참사 등에 대한 수사를 전면 가로막고 민족앞에 헤아릴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 전두환역도들을 극구 비호, 두둔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중을 모독하는짓도 서슴지 않던 이자들이다.

하다면 《자한당》것들이 왜 이런 란동질을 계속 벌려대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 하나는 촛불민심으로 태여난 현 집권세력을 독재세력으로, 경제와 민생파탄 등의 주범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저들에게 비발치는 민심의 저주와 분노를 돌려세우자는데 있다. 다른 하나는 온갖 죄악을 저지른 저들의 죄행을 은폐시키고 재집권을 꾀함으로써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교살하고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려보려는데 있다.

그런데로부터 《국회》안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피터지는 싸움질을 일삼다 못해 밖으로 달려나가 《좌파독재청산》을 고아대는가 하면 《세월》호참사를 《북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고 유가족들을 《시체장사군》 등으로 모독하였으며 광주인민봉기 역시 《북의 특수군에 의해 일어난 폭동》으로, 봉기자들을 《괴물집단》으로 모독하고 봉기를 진압한 전두환역도를 《영웅》으로 찬미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은것이다.

이런 《자한당》것들이야말로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이기를 그만둔 불망종들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자한당》것들이 싸움끝에 삭발이나 하고 집회를 벌리고 망발을 줴쳐댄다고 해서 민중의 눈길을 끌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하면서 《장외투쟁》을 할것이 아니라 쓰레기나 치우라고 조소하고있다.

초보적인 사리와 분별력도 없이 피를 물고 날뛰는 이런 《자한당》을 그대로 둔다면 그 후과는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사회의 질곡이며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자한당》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이 분노에 찬 남조선 민심의 목소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한당》에 이미 사형선고를 내리였다. 그들은 재집권야망을 드러내며 온갖 란동을 일삼는 보수세력에게 반드시 철추를 내릴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속담 (편견)

- 고운 사람 미운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데 없다

한번 곱게 본 사람은 자꾸 곱게만 보여서 결함이 보이지 않고 한번 밉게 본 사람은 자꾸 밉게만 보여서 좋은 점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람을 대하는데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 쉽다는것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 대구멍으로 하늘 쳐다보기

사물현상을 전면적으로 넓게 보지 못하고 일면적으로 좁게 보는것을 이르는 말.

- 우물안의 개구리

보고 들은것이 너무 적어서 세상물정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　*　*

늘어나는 행방불명자와 《랍치자문제》

얼마전 중국의 한 잡지는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해마다 10만명씩 인간세상에서 《증발》되고있다는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주장이 아니다.

현재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세상과의 접촉이 거의나 단절된 외진 곳에서 홀로 야생짐승처럼 되는대로 살다가 생을 마친다.

채무, 실업, 가정폭력, 학업곤난 등의 리유들로 하여 줄을 지어 인간세상을 등지고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러한 실종자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랍치자문제》로 련결시키면서 세계여론을 어지럽히군 한다는데 있다.

일본의 랍치타령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궤변이고 고약한 날조설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는 사건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얼마전 일본경찰이 발표한 《특정실종자》에 대한 자료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특정실종자》로 말하면 1992년 5월 당시 26살 난 한 남성이였는데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외출한 후 오래동안 행적을 감추었다.

경찰은 《북조선에 의한 랍치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하던 이 《특정실종자》가 현재 살아있다는것을 올해 4월에야 확인하였다.

《특정실종자》들의 사건은 이미전에도 여러번 있었다.

2004년 6월 6일 새벽 니이가다 앞바다에 혼자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던 고야마 슈지가 9년이 지나 지바현의 중고선박수출입회사 부지내에서 고기그물에 엉키여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되였던것이다.

그리고 2015년에는 가나가와현과 돗도리현, 나가노현에서 《북조선에 의해 랍치》되였을수 있다고 하던 실종자들이 살아있는채로 발견되였다. 2016년에는 도꾜도에서 행방불명되였던 사람을 31년만에야 찾아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국내에서 범람하는 온갖 사회적악페로 인해 생겨나는 숱한 실종자들을 모두 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랍치피해자가족집회》와 같은 것을 자주 벌리며 반공화국소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랍치자문제》는 이미 지난 2002년 당시 일본수상의 평양방문과 력사적인 조일평양선언발표를 계기로 완전히 해결된 문제이다.

그런데 《특정실종자》들이 발견되였을 때마다 심각한 내부모순에 의해 초래된 행방불명자문제를 해결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려 하는 일본의 진짜 목적은 어떻게 하나 과거죄악의 청산에서 한사코 벗어나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상호불신을 깨고 신뢰조성을 하겠다.》는 일본식사고방식이란 바로 이렇다.

정치앞에 량심과 도의가 있고 외교우에 정의와 진실이 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입만 벌리면 운운하는 《랍치자문제》로 말하면 도리여 공화국이 일본에 대고 크게 꾸짖어야 할 사안이다.

일본의 국가랍치테로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조선민족이기때문이다.

1590년대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은 방대한 침략무력을 투입하여 1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랍치하였으며 지난 세기초에는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면서 고종황제의 아들과 딸까지 강제련행, 랍치해가는 범죄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중일전쟁도발후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내몬것도 일본이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고가 꽃나이청춘을 무참히 짓밟고 학살한 특대형인권유린만행들을 저지른 일본이 오늘날 반성, 사죄하는것이 도리이고 법도이건만 가책은커녕 오히려 제편에서 그 누구의 《랍치자문제》를 떠들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이런자들이 그 무슨 《국민감정》을 운운하며 《랍치자문제》해결을 대화의 명분으로 들고나오는것이야말로 량심도 체면도 없는 몰지각한 행위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일본당국은 남을 걸고드는 허튼 나발을 불기 전에 오늘 일본렬도에서 특대형화제거리로 되고있는 제 집안의 유괴랍치문제, 행불자문제부터 바로잡아야한다.

일본은 대를 두고 속죄하고 빌어도 모자랄 과거죄악에 대한 반성과 배상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앞으로의 일본을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호평받는 가죽구두

주체89(2000)년 1월에 창립된 만경대구두공장은 가죽구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죽구두들은 공기통과성이 좋을뿐아니라 유연하고 견고하며 탄성을 가지고있어 신기에 편리하다.

이 공장 제품의 상표는 《천리》이다.

《천리》상표를 단 여러 종류의 가죽구두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신발전시회－2018과 올해에 진행된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19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금 공장제품들은 평양제1백화점, 광복지구상업중심, 평양역전백화점을 비롯한 상업봉사망들에서 판매되고있는데 사람들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공장의 리선희기술준비원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신발도안과 신발설계방법을 보다 과학화하여 사람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는 각이한 신발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것이 자기들의 임무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장수산 현암 본사기자 김혁철

나무들도 자라기 힘든 아찔한 기암절벽에 기묘하게 들어앉은 현암,

옛날 어떤 오누이가 지었다는 전설이 깃든 현암은 황해금강으로 불리워온 장수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신비로움을 더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1980188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